

자유 · 사랑 · 평화

남가주

# 거울



the Mirror of Ewha

제22호 ·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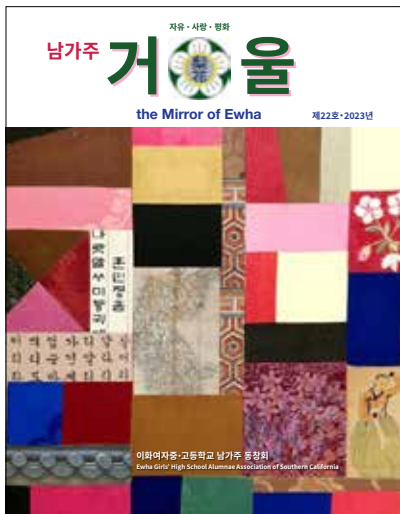
나랏말싸미 듕귎  
부리미정예

어 의 업 가 리 알 살  
리 리 순 던 알 라 어  
리 도 바 새 리 리 리

이화여자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 목차 Vol. 22 2023

03	인사말 .....	이화여자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장 장현주 (75)
04	축사 .....	남가주 후원 이사장 홍훈경(70)
05	축사 .....	이화여자 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박재욱
06	축사 .....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김혜정 (76)
07	축사 .....	북미주 총동창회장 현기섭 (65)
08	축사 .....	학교 법인 이화학원 이사장 정창용 (66)
09	거울지 사랑   거울지에 담겨진 사랑 .....	안원숙 (75)
10	그리운 추억   천국에서 만납시다 .....	정덕주 (66)
11	그리운 추억   행복은 그대 가슴에 .....	김정신 (68)
13	특별기고   60주년 재상봉 .....	김윤자 (63)
16	특별기고   챗GPT 광풍 .....	윤수경 (61)
18	특별기고   시니어 임파워링 .....	김정자 (64)
20	감사편지   장학금 감사글 .....	엄지윤, 이주현, Hanna Sung Sarah Kim, Elizabeth You, Marilyn Benavides
22	아름다운 이화인   이빛상 받은 내친구 문애리 .....	이주혜 (75)
24	아름다운 이화인   현 이화여고 교장과의 만남 .....	주준탁 (63)
25	아름다운 이화인   고등학교 시작한지 3일만에 6.25가! .....	이영순 (53)
26	한류열풍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한국단어로 본 한류의 세계화 .....	신보미 (80)
28	한류열풍   K-Language (개량한글) .....	이영희(74)
30	한류 열풍   밥을 나누는 한국의 정 .....	김미례 (75)
32	한류열풍   K-Power (한류의 현시점) .....	권기숙 (74)
34	한류열풍   K-Food .....	이문희 (68)
35	한류열풍   아티스트 심현주의 T.P.O 메이크업 .....	심현주 (69)
36	한류 열풍   영웅시대의 찌 사랑 .....	노기제 (65)
38	음악산책   임윤찬 공연을 보고 .....	강미자 (62)
39	음악산책   임윤찬 연주 관람 후기 .....	박혜경 (78)
40	미술전   흠이 빛은 나의 정체성 .....	박(김)영신 (67)
42	미술전   남가주 풍경화 단체와 백베이 쇼 .....	원철경 (75)
44	라인댄스   김옥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라인댄스 .....	박원선 (80)
45	글 모음   음악과 나의 인생 .....	강미자 (62)
47	글 모음   짐살라빔 .....	김명옥 (64)
48	글 모음   스카이 워크 .....	손장숙 (75)
50	글 모음   이화인 동서와의 가족여행 .....	신해림(75)/박선희 (70)
52	글 모음   음악을 사랑하는 이화인 .....	김정자 (64)
53	이모저모	
55	동아리 소식   걷기 반	
56	동아리 소식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 합창단	
58	동아리 소식   문화 탐방단	
59	동아리 소식   골프 모임	
60	동아리 소식   이화코랄	
62	동아리 소식   민화반/메이크업반	
63	지혜로운 이화인 가족들의 기 소식 (각 기 소개글)	
86	동창회 공지사항   유관순 기념관 건축 안내	
88	동창회 내역	
89	이사회비 및 광고/후원금 내역	
91	편집후기 .....	이주혜 (75)



표지디자인: 김미례 (75)  
한지희클래스

## 남가주 거울 이화여자 중 · 고등학교 남가주동창회보

발행일 | 2023년 9월 30일 편집인 | 이주혜

발행인 | 동창회장 장현주 편집위원 | 권선희, 한영덕, 최원경, 김미례, 원철경



## 제 22호 거울지를 발행하며...

사랑하는 남가주 이화 여중고 동창님들 안녕하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께 첫편지를 띄운 일이 었그제 같은데 금년도 벌써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맡으며 걱정과 염려가 앞섰지만 이화를 사랑하시는 선후배님들의 후원과 열정으로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창회를 맡으며 첫 번째 행사로 교포 사회에서 주최한 삼일절 기념 행사에 참가해 이화코랄을 비롯한 저희 동창 분들의 멋진 합창과 단막극으로 유관순 열사의 후예로 삼일절 행사를 빛내주었습니다. 정기 이사회와 총회 때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처럼 만난 선후배님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고 맛난 음식을 즐기시는 모습을 볼때 무척 기뻐합니다. 특별히 이사회의 마지막을 장식해 준 피아니스트 장성의 열정적인 피아노 연주는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월의 총회에는 100여분이 참석하셔서 공천위원 3분을 새로 선출했으며 윤승준 선교사님을 모시고 스마트폰을 정말 스마트하게 사용 하는방법, 그리고 챗GPT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과 9월의 골프대회를 통해 푸른 잔디를 밟으며 선후배간에 친교도 나누었고 6월에는 Norton Simon Museum을 방문하여 그림과 조각 작품에 심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8월에는 30분을 모시고 Hollywood Bowl에서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도 함께 감상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와인과 함께 듣는 피아노 연주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4분의 동창 선교사님들께 선교 후원금을 지원해 드렸으며 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했고 모교에도 장학 후원금으로 \$10,000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연초에 튀르키예에 지진피해 구조 후원금으로 UNICEF를 통해 \$3000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동창회 산하에는 여러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화 동창 합창단, 이화코랄, 걷기반, 민화교실과 메이컵반, 골프반과 문화 탐방반 등 여러 동아리들이 각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금년 행사로 송년파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송년모임에는 각 기 대항 Dance Battle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동창회 행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많이 참석 하셔서 마음껏 즐겨 주세요. 12월 2일에 있을 송년 파티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뵙고 싶습니다.

이번 제22호 거울지를 발간하며 글로 또 재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런 모든 행사는 여러분들이 보내 주시는 동창회비와 이사회비 또 각종 도네이션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동창회는 우리 동창님들의 관심과 후원,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한번 깨달으며 이자리를 빌어 모든 동창님들께 한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제가 좀더 쉽게 동창회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동창회 활동을 잘 기록해서 넘겨주신 74학번 이영희 회장님과 모든 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75학번의 명예를 걸고 임원직을 맡아주고 열심으로 일해주는 동기들에게도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남가주 이화 동창회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계속 발전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제가 맡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창회의 발전과 또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가주 동창회장 장현주 (75)



## 한류의 전성시대

제22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항상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K-Food, K-Drama, K-Classic, K-Golf 등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여기에 더욱 위안과 힘을 더하는 것이 동창회입니다.

음식과 드라마를 먼 타향에서도 접하면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도 우리 고유의 맛과 어울려 적응해 왔으며 드라마에서 다루는 가족, 사랑, 우정 등등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에서 또한 위로를 받아 왔습니다.

이러하듯 또한 동창회 역할도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접하며 선후배 모두가 연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이와 존경심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위안과 힘을 주는 최상의 K 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만세 만만세 우리이화!

남가주 후원이사장 홍훈정(70)

## 22번째 거듭되는 ‘비춤과 나눔’의 <남가주 거울>



몸은 멀리 남가주에 계시지만 마음만은 서울 정동을 맴돌며 모교 이화를 사랑하시는 남가주 동창님들 안녕하세요? 멀리 서울 정동에서는 아름다운 이화동산을 거닐며 남가주 동창님들을 그리워합니다.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간 첫 해를 맞아 동창들의 참여와 협조와 이화사랑은 예상 이상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다시 시행하면서 3년간의 공백이 꽤 길었음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3.1절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3.1절 행사가 유관순기념관에서 거행되어 학생, 선생님과 동창들이 모두 동원되어 유관순 열사 대선배님의 애국심을 다시 한 번 더 기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창립기념일에는 3개 학년 모두가 참여하는 창립기념식을 거행하였고 3년만에 졸업 30, 40, 50주년과 60주년 재상봉 기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나누며 축하를 받았고 60주년 선배님들은 재상봉 기념 합창을 하여 젊은 동창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 동안 재상봉 행사가 없었기에 구전되던 정보가 단절되어 여러 번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3년이라는 공백이 여러 가지를 잊기에 충분히 길었던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동창회의 전통도 선배 동창들이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 전통의 전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동창회는 끊임없이 참여하여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며 봉사하는 고유의 일을 함으로서 이화의 아름다운 전통이 전송되어진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다시 알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창립기념일 바자회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았고 온, 오프라인 형태로 좀더 발전되고 흥미있게 진행하여 많은 동창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동창들이 내주시고 사주시는 적극적인 참여로 가치있는 여러가지 상품을 저렴하게 나눌 수 있어서 훌륭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9월에는 유관순기념관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이화미술바자 <반석위에 터닥고 잘 세울 우리 집 II>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마켓은 9월 7일부터, 오프라인 마켓은 12일부터 시작하여 15일까지 이화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동창들의 작품과 진귀한 소장품들을 절반의 낮은 가격으로 기부 받아 판매하고, 판매된 금액은 기증자의 유관순기념관 건축기금 기부금으로 보내드립니다. 8월 중 작품들을 수거하는 중이며 요즘은 태풍 <카논>의 여파로 종일 바람비가 내리는 중에도 작가 동창들은 동창회로 가져다 주시고,

실행임원들은 작품을 가지러 여기저기 찾아 가느라 분주하게 지냅니다.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1년의 경험과 같이 거역의 성공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유관순기념관 건축기금은 현재 45억 702만여 원이 모금되어 동창들의 강력하고 끊임없는 이화사랑과 모금을 시작해준 북미주 동창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 건축이 시작되지 못하고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모금은 완공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

총동창회는 졸업 30주년인 93년 졸업 동창부터 50주년인 73년 졸업 동창까지 21기 동창들이 임원으로 참가하여 운영해 왔으나 90년 이후 졸업 동창들의 참여가 어려워 9월부터는 60~72년 졸업 동창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올해 30주년 재상봉을 맞이하는 93년 졸업 동창들은 불과 1주일 전에 극적으로 27명이 모일 수 있어서 기념식에 참여할 수는 있었으나 동기들의 재상봉 행사는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역할이 다양해져서 대부분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기에 동창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극히 부족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선배님들의 임원 참여로 총동창회의 전통이 후배들에게 더욱 진솔하게 전송되어 총동창회의 힘이 더 막강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협조해주시는 선배님들의 무한한 이화사랑에 감사드리고 계속 건강을 유지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2년 8월에 남가주 이화동창들에게 ‘남가주 거울’이라는 추억 어린 선물이 탄생하여 올해로 22번째 되었으니 빛이 바랄만도 하건만 이 ‘거울’은 시간이 갈수록 반짝이는 명품거울입니다. 많은 동창들이 갖고 닦고 나누며 정성들여 돌봐주시어 서울 총동창회의 소식도 ‘남가주 거울’을 통하여 전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소중함을 느낍니다. 북미주에서는 정동과 제일 가깝고, 제일 많은 동창들이 사시고, 북미주의 서쪽을 대표하는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남가주 거울’도 정성껏 보존되어 동창들을 환하게 비춰주며 소식을 나누는 역할로 길이길이 반짝반짝 빛나 주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박재욱



## 남가주 동창님들께

남가주 동창님들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속에서 남가주 동창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멀리 외국에 계시면서도 언제나 이화를 잊지 않으시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하여주시는 남가주 동창님들의 모교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이화 교정에서 거행된 137주년 창립 기념행사는 전 세대 동창님들을 아우르는 많은 동창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 동창 바자회, 재상봉 기념행사, 학생 축제 등 모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동창님들이 참석해 주셨고 함께한 동창님들 모두 잠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 이화 교정에서 한껏 들뜬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됨'을 느끼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남가주 동창님들 역시 63년, 73년, 83년 재상봉 동창님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창립 기념일에 맞춰 모교를 방문하시고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즐겁고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주셔서 특히 더 감사했습니다.

올해 학교는 방역과 교육 두 가지 모두를 병행하면서 모든 학교 프로그램을 정상화 하였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온 미래 교육 system으로의 전환에 맞춰 이화의 교사들은 한 마음이 되어 발빠르게 변화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더욱 높은 인정과 평가를 받으며 미래를 앞장서 주도하는 학교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유, 사랑, 평화의 교훈 아래 따뜻한 감성을 지닌, 어느 자리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키우고자 하는 이화 교육의 목표는 융합 인재를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더욱 그 가치가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37년 동안 이화가 이화다움을 잃지 않고 이화 교육을 이어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창님들의 모교 후원에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유관순 기념관 개축기금 모금에 45억에 가까운 놀라운 모금을 이뤄내신 동창님들의 모교 사랑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화라서 가능하고 이화만이 가능한' 일이기에 감사함과 자랑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이 모든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는 남가주 동창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창님들이 보여주시는 이화 사랑의 모습과 실천이 현재 재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후배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귀감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유관순기념관 개축 사업이 하루 빨리 시작되어 이화인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랑하는 멋진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가주 동창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현주 회장님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분들과 모든 남가주 동창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고 더욱 더 발전하는 남가주 동창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화동산에서  
교장 김혜경(76) 올림



## 거울 22호 발간을 축하 드립니다.

남가주 동창 여러분!

지난 22년을 매년 “거울”지를 발행해오고 계신 남가주 동창회의 전통과 이화사랑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양한 곳에서 삶을 나누는 글들은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 수 있으며, 여러가지 크고 화려한 행사들로 성황을 이루는 남가주 동창회는 모교를 위한 후원과 결집으로 북미주 동창회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다시금 맛보았던 그 감격은 이화 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6년을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화를 빛낸 분들을 보면서 이화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20년, 30년, 40년 근속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신 선생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하신 분들에게 새삼 감사한 마음입니다.

5월 26일 개교 기념 전야에 모든 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이화의 전통, 노천극장에서 열린 햇불 예배에서 은혜의 현장은 커다란 감격이었습니다. 각 학년마다 점차로 촛불 점화하며 빛의 움직임으로 어두움에 빛되라는 교훈이 상기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을 함께 외치며 이화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되기를 송영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교가와 함께 언제나 부르는 찬양, 참 아름다워라를 열창하며 과거로부터 현재그리고 미래까지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가주 동창 여러분, 제 11회 북미주 총동창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시는 분들께 기도와 응원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열릴 것을 고대하며 모두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북미주 총동창회장 현기섭(65)



## 남가주 동창님들께

새롭게 회장을 맡으신 장현주 회장님과 동창님들께 인사드리며 거울지 22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2023년 5월의 이화는 활기차고 뜻깊은 창립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화의 재학생들과 졸업 60주년, 50주년, 40주년, 30주년 재상봉 동창을 비롯한 동창님들의 축제였습니다.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 선생님이 1886년 이곳 정동에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를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해 세우신 지 137년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어려운 고비에도 늘 함께하시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스크랜튼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남가주 LA 동창님들의 모교 이화 사랑은 따뜻하고 열정적이며 각별하심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Frey Hall이 화재로 전소된 자리에 「이화100주년기념관」을 세우는 일과 이화장학기금을 만드는 일, 그리고 지금은 「유관순기념관 재건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것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님들의 끊임없는 모교 사랑과 기도, 성원이 모여 이화가 자율형사립고로 자리 잡아 더욱 발전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137년을 지나는 이화 역사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화는 이화다움을 잃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 가는 여성 교육에 앞장서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를, 산업화·근대화 시기에는 다방면에 많은 여성 지도자를 키워냈습니다. 이제 이화는 「자유·사랑·평화」의 교훈과 「약한 이 힘 되고 어둠의 빛 되자」는 이화 정신을 살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위하여 모든 이화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화, 세계로 뻗어가는 이화를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남가주 동창님들!

언제나처럼 이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 LA에서 열릴 북미주 동창회에서 반갑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사장 정창용



# 겨울지에 담겨진 사랑이...

안원숙(75)

그윽한 꽃내음  
소복이 쌓일 즈음

우리들의 지나온 삶의 흔적들  
이야기되어  
작은 꽃송이 송이  
활짝 피어오르네

배꽃 향기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고운 하모니

등나무 아래에서  
도란 도란 풀어내던  
못다한 이야기들

기쁜 소식 담아내며  
높이 높이 날아올라  
온천지로 퍼져 나가리

숨겨진 보화들  
소망 가득 싣고서  
그곳에  
우리 모두 숨쉬고 있다네

이화 사랑 !  
영원히 영원히...





정덕주(66)

## 천국에서 만납시다!

L.A. 의 오랜 가문을 끝내려는 듯 신년 벽두부터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쏟아진 빗물은 내 가슴에 고스란히 눈물로 쌓이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해를 넘기기 전 혼인해야 된다는 아버지 말씀대로 1970년 12월 12일 이곳 나성 한인 연합 장로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 준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가정을 이루기 전 이미 오직 예수로 거듭났기에 “말이 기도, 행동이 설교, 생활이 예배” 임을 집에서나 밖에서나 본을 보여 준 평생 동반자였다. 퇴근 후 driveway 올라오는 차 소리에 어린 세 아이들이 뛰어나가면 큰 딸은 목마 태우고 두 아들은 왼팔과 오른팔에 안고 늘 축복하는 말, “Wonderful 딸!, Wonderful 아들!”. 유년 주일학교와 중시작으로 여지껏에게 천국 갈 준비, 바리새인 믿 된다고 자주 타이 앞에서 사라지길



등부 성가대를 교회 다니는 나 비 제대로 해야 음으로는 아니 르던 모습이 눈 않는다.

2008년 봄 제 기도회 참석하려는 별 증상이 없 부터 가끔씩 느껴 은 자신의 죽음을 기도로 준비케 하 을 주관하시는 하 의료 도움 없이 13년을 지켜 주시다가 massive heart attack으로 단번에 주님 품으로 데려가셨다. 쓰러지기 바로 전날 케냐 파송 받으시는 목사님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인사를 했으니 마지막 주일예배인 줄 영 으로 알았나 보다.

40회 국가조찬 한국에 갔을 때 었는데 이듬해 진 심장의 통증 10여 년 넘게 션다. 생사 화복 나뉘게서 어떤

운전면허조차 없는 나에게 한결같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준 소중한 지아비를 비 내리는 정월 열흘 날 갑자기 잃어버린 슬픔, 허전함, 그리움을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 인생 살면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힘든 나날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과 영생, 다시 만날 소망을 주셨으니 받은 복을 세어 가며 오늘도 감사의 삶을 이어간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셔서 너무도 고맙다는 삼남매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Good Bye 가 아닌 Good Night! See you in Heaven! 아름다운 추모사로 마무리 지은 것을 기억하면서...

## 행복은 그대 가슴에



김정신(68)

우리 사무실에는 많은 제약회사 사람들이 언제나 끝도 없이 드나든다. 간혹 이름을 알고 아는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상 형식적인 인사만 끝내고 자기들의 일만 보고 가는 편이다.

요즘 내가 기억이 나는 초로의 백인 남자가 있다. 웬지 어깨가 쳐져있고 늘 배가 고파보인다. 몇번을 왕래하는 동안 이 분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 가족 얘기를 참 즐겨 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어린 아들 얘기를 할때는 마치 꼭 아들을 자기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는 듯이 온 얼굴 표정을 가득 지으며 행복하게 얘기를 하곤한다. 자기는 프로 정구 선수로 뛰고 싶었는데 아들을 얻고 난 후에 생각을 바꾸었다고 했다. 순간, 아주 짧은 순간, 난 그의 쓸쓸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임시 직원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다.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더욱더 많은 얘기가 하고 싶어서 타주로 2박3일 여행을 갔었는데 자기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며 또 어린 아이의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내가 "당신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군요" 하니까 정색을 하며 "행복한 가정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지요" 해서 조금은 놀랍고 알고도 싶어 비결을 물어 보았다.

다 말을 할수는 없지만 결혼한 날부터 부인을 위해 세 가지를 꼭 해 주었다고 한다.

첫번째는 부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단 한번도 반대도 안 해 보았고 언제나 기억을 해 두었다고 했다.

두번째는 부인이 무슨 이유이든간에 선물을 받고 싶어할 때

는 언제나 주머니가 허락하는 한 선물을 하는 편이고 부인이 선물을 열며 행복해하면 굉장한 날인 것처럼 같이 기뻐해 주었다고 한다. 단, 이 부인은 절대 무리한 것은 부탁한 적이 없단다.

세번째는(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기의 퇴근시간을 꼭 전화로 알려주고는 한 시간을 먼저 집에 간다고 했다. 그러고는 당신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남은 일을 다 안 하고 달려 왔다고 한단다.



전형적인 한국 남편과 사는 나로서는 너무나 다른 사고 방식에 별로 부럽다는 생각조차도 안 들었지만 그날 그 분이 다녀간 뒤로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났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넉넉한 지주의 종손으로 태어나신 아버지는 배재학당, 연희 전문대까지 나오신 할아버지의 수려한 외모와 가족에 대한 불성실하심으로 돈도 다 없어지고 형제도 많고 할머니마저 중풍으로 쓰러지신 집에 장남이 되셨다.

한국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들어가셨지만 등록금도 막막한데다 충청도의 고루한 관습으로 윗 형제가

결혼을 해야 밑의 동생들도 결혼시킨다해서 어찌어찌하여 학교 교사인 엄마를 만나 대학교 이학년때 결혼을 하셨다. 엄마는 대학 사각모를 쓰시고 까만 망토를 두르시고 자갈밭을 밟고 오는 하얀 얼굴의 아버지에게 단 한번도 거절도 못 해보고 결혼 하셨단다. 아버지는 교사인 엄마덕분에 무사히 대학도 졸업하시고 그 사이 오빠도 태어났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교편도 잡으실 수 있었다.

나를 가졌을 무렵에 아버지는 교사가 적성에 안 맞으니 공부를 더 해서 의대로 진학하고 싶다고 하셨단다. 엄마는 그때 정말 하늘이 노렸다고 하셨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고 동생도 생기고 아버지는 한번도 꿈을 가져 보지 않았던 분같이 다정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써 지내셨다. 조그만 마당이지만 각 계절 나무도 심으시고 문패도 온 식구 이름을 다 새겨 넣으실 정도로 감성적 이셨다.

난 우리 집이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확실한것은 아버지 엄마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았다는것이다.

나는 결혼해서 미국을 왔고 힘든 의학을 공부해서 겨우 훈련과정이 끝나 갈 무렵 남편은 2년을 더 공부해서 전문의가 되어줬다 했다. 앞이 깜깜했다. 난 애가 둘이나 있었고 너무나 형편이 어려웠는데,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 나했는데 더 공부를 한다니.. 엄마에게 속상한 마음에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엄마는 곧 답장을 쓰셨는데 남자가 하고 싶다는 일을 절대 막지 말라며 아버지 얘기를 하셨다.

봄이면 식구 수대로 봉오리 달린 목련을 심으시고 내년이면 두배로 풍성해짐을 삼 남매에게 설명하시고 장미나무에게는 각각 엄마를 포함해 우리 이름을 붙이셨다. 우리집 나무는 거의 다가 그랬다. 소박한 저녁상도 잔디에서 먹으면 즐거운 피크닉이 되었다. 난 아버지가 언제나 멋있으시고 자랑스러



웠다. 그러나 엄마는 그때마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꿈에 대한 동경을 보셨고, 이루시지 못한 쓸쓸함을 보셨다고 하셨다. 아버지가 하늘을 쳐다 보시며 푸른 하늘의 흰 구름이 곱구나라고 하시기만 해도 가슴이 내려 앉으셨단다. 하지만 난 단 한번도 아버지가 엄마가 반대하셨던 그 때를 원망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내 남편은 집에 몇시에 올거라고 전화도 잘 안하고 혹시 해도 몇 시간씩 늦게 들어 온다. 항상 피곤에 지쳐 있다가도 멕시코 의료 봉사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며 생동감이 생긴다. 끝없이 끊임없이 해야하는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그일에 굉장히 목 말라한다. 난 이런 남편을 볼 때마다 내 딸이 시집가서 남편의 얘기를 나에게 할때 엄마가 나한테 쓰셨던 장문의 편지를 안 쓰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 토요일 오후인 오늘도 한 달 뒤의 의료 봉사로 준비할것이 많다며 꼬리 곰탕을 대충 먹고 나갔다.

이번 주말에도 난 아무래도 제약회사 그 분같이 내 행복은 나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아주 쉬운것 부터 해야겠다. 창문을 활짝 열고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을 구워야겠다. 그리고 내 친구가 보내준 단풍잎을 넣어 만든 노오란 레몬초를 켜야겠다. 그러면 촛불은 아름답게 타 오를거고 레몬 냄새에 비린내도 없어질거고 노오란 촛속에 빨강 단풍잎은 더 선명해지면서 난 행복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들의 졸업 60주년 재상봉 !



김윤자(63)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다. 작년 여름 정상자 회장의 연락을 받았다. 2023년 5월에 졸업 60주년 기념행사를 할 터이니 재미 동문들에게 홍보 및 참가 권유를 부탁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친구들은 모두 마음이 들떠서 참석을 하고 싶는데 걸리는 것들이 많았다.

첫째는 본인들의 건강상태, 그 다음은 배우자의 건강상태, 또는 손주들 뒷바라지, 그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었다.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는 항공료, 호텔숙박 등등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국에 가서 고작 1주일 행사를 참석하고 귀국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아쉽다는 점이었다. 부모님이 생존하신다면 한국에서 머물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안계시니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남해 여행 4박 5일” 이었다. 우리들끼리만의 여행이래야 재미가 있을 터인데, 단체 27명을 모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미주 동부대표로 손종임, 남가주 Orange County 대표 주춘탁과 함께 열심히 단체 카톡방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작을 했고 2 명씩 짝을 지으면서 명단을 만들었다.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동문들과 전화로, 카톡으로, 낮과 밤 쉬지 않고 연락하면서 잊고 있던 친구들이 발굴되는 성과도 있었다. 2022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2023년 3월이 되면서 37명으로 늘어났다.

출국할 날이 가까워 오면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갑자기 몸이 아픈 동문, 사고로 다친 동문,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 등으로 5명이 취소, 결국 32명이 남해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다.

5/22 나는 밤비행기로 출국하여 5/24 인천공항에 13시간만에 도착했다. 친구들이 미리 와서 숙박하고 있던 뉴서울 호텔로 달려갔다. 친구방에서 급히 shower를 하고 아침 9시 그토록 고대하던 남해 여행이 시작되었다.

5/24 아침 9시 버스 출발 전, 돌아가면서 주님께 안전 여행과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재미있는 것은 버스 기사가 우리가 출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마지막날 출발 기도를 드렸을 때 기사님 말씀이 “오늘 기도는 눈물이 났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기사님도 앞으로 교회에 나가세요” 했더니 “그래야죠.” 라고 화답을 했다.

56년전 내가 한국을 떠났을 때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 벌거숭이 였는데 뻗뻗하게 들어선 나무 숲이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점심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식사를 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어느 곳 하나도 흠잡을 데 없이 청결했다. 먹을거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 봉어빵, 호도과자, 군밤, 칼국수, 우동, 비빔밥 ...



5/25 전주, 고창을 들러 선운사에 갔을 때 일이다. 동문들과 남편들 8명을 포함한 32명의 나이가 80 +/- 고령이다. 처음 가는 길이라서 넘어질까, 길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여행 가이드에게 인원수를 잘 count 하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다. 선운사에서 하산 하여 인원수를 check 했더니 1명이 모자란다. 남편 한 분이 없어져서 가이드, 그분의 wife, 나, 이렇게 3 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찾아 다녔다. 내 평생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이름을 그토록 애타게 불러 보기는 처음이었다. 20여분이 지나서야 우리 일행을 찾아 다니시는 남편분을 찾았다. 산에서 주차장으로 가시다가 두 갈래 길에서 우리와 반대방향으로 가시는 바람에 사단이 났던 것이다.

5/26 목포에서 해상 cable car 를 30여분 탔는데 아름다운 바다 경치! 딱 어울리는 날씨! 금상첨화였다. 그곳에서 해남 우수영 국민 관광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최대의 전과를 올린 명량대첩 기념 관광지) 를 방문하고 울돌목 스카이워크를 걸으면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무찔렀던 그 현장을 체험하면서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다. 그후 섬 전체가 동백 나무로 둘러 싸인 아름다운 섬 오동도를 거닐었다.

5/27 청명한 날씨에 남해 소금강의 절경을 본 후, 평생 처음 전북 정식으로 점심을 먹은후 남해 독일 마을에 들려 남해 서독 전시관에서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역사와 애환이 담긴 사진속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저녁 때 거제도에 도착하여 호텔 뷔페로 마지막 저녁시간을 즐겁게 보냈다.

5/28 하루 세끼 진수성찬 대접을 받으니 cook을 전혀 하지

않아서 모두들 행복했다. 오동도, 거제도를 거쳐서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경하였으며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다.

5/29 이화재단의 초청으로 아침 7시 출발하여 이화운동장에 모여서 버스 3대로 재단 직원들과 총동창회 간부들과 우리 63 동기 총 57명이 철원 이화농장과 백마고지를 방문했다. 버스안에서 이화재단에서 준비한 따끈따끈한 떡, 이화일 동문 (뉴서울 호텔 사장) 이 준비한 sandwich로 아침식사를 하였다. 이화농장에서는 최상급 한우 steak 와 상추쌈으로 점심을 즐겼다. 버스 안에서는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상도 타고, 예쁜 badge도 받고, 덥지 않은 청명한 날씨로 우리 모두가 즐거웠다.

사실 우리 63 기 동문 들은 행운이었다. 뉴 서울 호텔 사장 이화일 동문이 미국에서 방문하는 동문과 남편 포함 50 여명 전원에게 4박5일 (5/28 - 6/1) 전액 무료 봉사를 하여 주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결단! 참으로 고마운 동문이었다.

5/30 유관순 기념관에서 공식행사가 거행되었다. 부족한 나는 “이화를 빛낸 상” 수상자로서 단상에 올라가서 앉았다. 올려 퍼지는 교가와 합창! 순서 하나 하나가 가슴에 벅차 올랐다. 부족한 내가 귀한 상을 받은 것은 실로 주님의 은혜였다. 공식 행사를 마치고 학교에서 “신봉조 기념관” 으로 63년 졸업생 180 여명을 점심식사로 초대하였다. 정말로 몇 십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서로 껴안고 정담을 나누며 좋아했던 golden time이었다. “정말 그 친구들 그대로더라.” “우리 이만하면 괜찮지 않니?” “멋있어!” 라고 하면서...





점심 후 63 동기들의 감사음악 예배가 이화교회에서 거행되었다. 이영복 목사님의 설교 후 63 합창단의 합창, 지휘자도 반주자도 63!, 2중창도 63! 열렬한 박수를 보내면서 1시간 동안 감사예배를 드렸다.

마침 행사 시간이 겹쳐져서 일단 나는 이화를 빛낸 수상자들의 모임인 “새 빛 모임”에 참석해서 회비를 낸 다음 다시 이화교회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기념품을 받았다.

5/31 동기 박순자의 초청으로 플라자 호텔에서 170명이 넘는 동문들이 6 course menu인 안심 steak 와 Lobster tail을 맛있게 즐겼다. 귀하고 멋진 선물이었다.

1부는 Re-union 축하, 정상자 회장과 임원들의 수고로 그동안 수금한 기부금 6억 중에서 장학금에 1억 5천 4백만원, 유관순 기념관 증축 기금으로 2억 5천 5백만원, 총동창회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생존하시는 선생님들 몇 분에게도 은사 감사금 1천 4백만원을 전달하였다.

2부는 남성 4중창단 초청 공연, 국악 공연, 이어서 sing along 으로 오찬을 마쳤다.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들로 사진을 찍느라 모두가 분주했다.

6/1 버스 6대로 130여명이 동창들의 기부금으로 1박 2일 강릉 무료여행을 떠났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최대 가옥인 선교장을 구경했고, 신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아르떼 뮤지엄”을 들린 다음, 아름다운 쓸비치 호텔에 check in 한 후 바닷길을 산책하였다.

석식 만찬은 잘 차린 호텔 뷔페를 먹은 후 “이화 여고 밤” 행사를 벌였다. 이화에서는 빠질 수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한 내가 설교 순서를 담당했다.

2부 행사는 여행사 소속 사회자가 진행하였고 마지막 순서는 동그렇게 손잡고 서서 sing along 으로 순서를 마쳤다. 쉬지 않고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와 조용히 눈물을 글썽이는 친구들도 있었다.

6/2 호텔 조식 후 ”하슬라 미술관”에서 작가의 이름이 없는 너무 특이한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용평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발왕산 등정, sky walk 산책 후에 버스 6대가 귀경의 길에 올랐다.

어느 날 내 짝궁 박숙이 내게 물었다. “나는 벌써 2000보 걸었는데 너는 몇 보 걸었니?” 나의 대답 “4500보 걸었는데…” “그렇게 6대 버스 사이를 누비고 다니니 나의 2배를 걸었구나!” 그 덕분인지 정신력 덕분인지 나는 감기도 몸살도 앓지 않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그렇게 공식적인 60주년 Re-union 행사를 마쳤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작은 사고들은 있었지만 잃어버린 사람도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63기 동문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축복에 감사를 드린다.

6/3 헤어지는 것이 아쉽다고 우리 동문들에게 호텔 무료숙박을 제공한 이화일 동문이 호텔 café 를 close하고 farewell party에 우리를 초청했다. Band도 불렀고 흥겹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담소도 하면서 아쉬운 시간을 즐겼다.

우리 63년도 졸업 할머니들은 60년 만에 정말 쫌-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꿈만 같았던 재상봉!

함께한 재상봉!

오래도록 기억하자!

Adios~~~ until we meet again!



윤수경 (61)

## 챗(Chat) GPT 광풍(狂風)

광풍(狂風)이 불고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 라는 광풍입니다. 아이폰 이후 가장 큰 혁명이라며 글로벌 기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계, 학계, 기업 특히 교회는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때 아닌 이 [광풍]에 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챗봇]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기업의 고객센터나 은행에서 채팅을 통해 업무시간 등을 물어보면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서비스를 한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기업 [오픈AI]가 만든 [챗 GPT]는 이런 기존의 [챗봇]에 [AI]를 접목해 만든 훨씬 진화된 [검색 엔진] 혹은 [생성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둑 AI, [알파고]와 작동 원리가 비슷합니다.

알파고가 사람의 여러 바둑의 수를 스스로 학습한 [대국(對局)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챗 GPT]는 인터넷에서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각종 질문과 답변, 문장들을 수집하고, 스스로 익히는 강화 학습을 거듭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화 학습]을 거듭한 챗 GPT는 사람에 버금가는 정교한 대화능력을 구사하게 됩니다. 사람처럼 시를 짓기도 하고, 코딩(coding)과 작곡 등 창작 능력도 상당합니다.

챗 GPT가 학술지를 참조해 만든 논문 초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하고, 전문가마저 속을 정도로 정교해진 데다가 최근엔 미국 로스쿨과 의사면허 시험도 통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챗 GPT를

베껴 숙제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챗 GPT 접속을 차단하고, 직접 손으로 쓴 논문과 구술시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산업계는 어떨고요. 이곳은 광풍이 더 세게 불고 있습니다. [노동 대체], [인간 대체], [초(超)인간 등장]이라는 광풍에 떨고 있습니다.

GPT는 어떻게 지식을 학습했을까? ‘날말 맞추기 연습’을 무한히 반복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_\_\_\_\_”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마지막 빈칸에 들어올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GPT 최신 모델인 GPT-3는 약 1억 5000개의 단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건 GPT가 단어 맞추기 문제를 할 때, ①“나는 밥을 ‘핸드폰’” ②“나는 밥을 ‘사슴벌레’” ③“나는 밥을 ‘버렸다’” ④“나는 밥을 ‘먹었다’”...와 같은 선택지가 1억5000개 있다는 뜻입니다. 5지선 다형 문제가 아니라 1억5000가지 선 다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나는 밥을\_\_\_\_\_”로 시작하는 문장 수십 수백만 개를 구해 GPT에게 문제를 내줬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늘 같지는 않지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답이 있겠죠. 일단 ‘사슴벌레’ 같은 생똥맞은 명사가 정답이 된 일은 없을 거구요. ‘먹었다’가 가장 자주쓰는 정답이 됐겠지요. 혹은 가끔 ‘맛있게’ 같은 단어도 정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GPT는 이 문제풀이를 통해 ‘밥을’ 다음에는 ‘먹었다’, ‘맛있게’ 와 같은 단어들 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밥’이라는 단어와 ‘먹다’ ‘맛있다’라는 단어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학습한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밥’이 ‘밥솥’, ‘냉장고’, ‘반찬’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학습하게 될 겁니다.

GPT가 미리 학습했다는 [지식]이란 바로 이 단어들 사이의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겠지만, 적어도 GPT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GPT는 ‘밥’이 무엇인지, ‘먹었다’가 무엇인지, ‘맛있다’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 단어들끼리 관련성이 높고, 그래서 같은 문장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훗날 챗 GPT에게 ‘밥과 관련된 이야기를 써줘’라고 부탁하면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뒤졌는데 밥과 반찬이 있었다’ 처럼, 서로 관련 있는 단어들을 집어넣은 그럴듯한 문장을 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나는 밥을’ 까지만 알려줬더니 ‘맛있다’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기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공지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의 일상 속에 준비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구글과 같은 대형 [검색 창]의 문장 자동완성 기능, 스마트폰의 문자 자동완성 기능이 그것입니다. 이 기능에 사용된 인공지능 모델은 GPT의 머나먼 선배 격인 RNN (순환신경망)이지만 학습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원리는 간단한 것 같지만 챗 GPT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은 엄청난 학습과 훈련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실업자의 증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리문제는 어

떻고요? 개인정보의 오남용, 치우친 데이터에 의한 거짓과 거짓선동,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둔갑 시키는 일, 마음도 없고 감정도 사랑도 없는 AI에게 영혼을 착취당하는 일, 도대체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데이터를 주고 학습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결국 사람이 악하면 악한 인공지능이 판을 칠 것입니다. 당연히 사탄은 가장 먼저 인공지능을 악용할 것이고요. 교회는 이런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이라는 광풍을 직시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선뜻 나서야 할 것입니다. 챗 GPT의 광풍? 예수님의 외침이 기억나네요. [광풍아 잠잠하라](막4:35)

참고로 회사별 인공지능은 카카오톡의 [AskUp], 구글의 [Bard], 마이크로 소프트의 [Bing Chat], 메타의 [RoBERTa], [Jasper], [Claude], [Neeva AI], [YouChat], [Character AI], [Learn AI] 등이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대화형 인공지능 / 인공지능 검색 엔진 / 그림 인공지능 (Text to Image)/ 음성 인공지능 (Text to Speech)/ 비디오 인공지능 (Text to Video/3D)/ 작곡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챗 GPT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면 웹사이트 chat.openai.com으로 이동하여 계정을 만들면 사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사용을 원하시면 비용을 조금 지불하면 됩니다.

< 챗 GPT 로고는 인터넷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김정자 (64)

## 시니어 임파워링 (Senior Empowering)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시 92:14)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시니어들에게는 축복받은 시대입니다. 105세 현역 의사인 이노하라 시게야키는 <앞으로도 살아갈 당신에게> 라는 책에서 “인생의 오후가 긴 것은 행복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래 살기를 잘했다’ 라고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부터 깨달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짜로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 왔는데, 이제야 자신을 조금씩 알게 되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차츰 알아가는 기쁨은 나이가 가져다 주는 임파워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가 되면서 해야 할 일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입니다. 헨리 프레데릭 아미엘은 “나이 드는 법을 알면 지혜에 통달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의 가장 어려운 단락이다.”라고 했습니다.

조앤 치티스터는 그녀의 책 <세월이 주는 선물> 에서 노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년은 결코 짐이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즐기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을 기

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진정으로 살아있어야 하는 시간이다.” 그녀는 이 책에서 시니어 임파워링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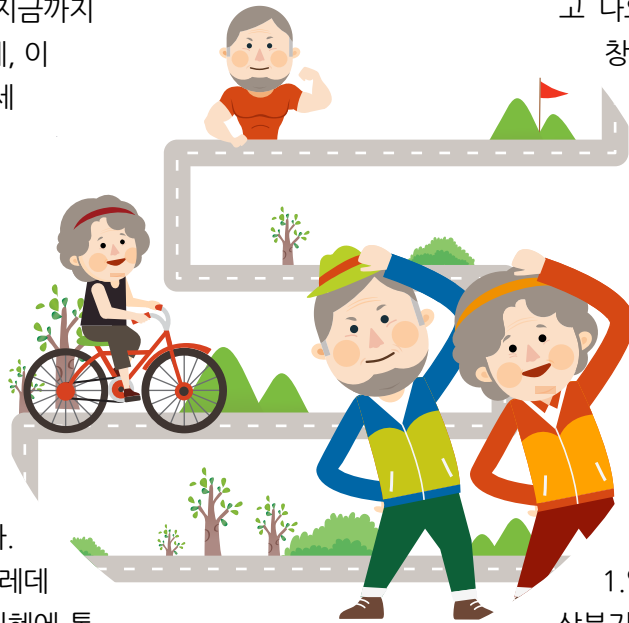
조지 맥도날드는 “나이 드는 것은 껍질을 뚫고 나오는 새 생명의 무르익음이요, 팽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Paul Stevens 는 <Aging Matters> (한국어 번역본 책 제목 /나이듦의 신학)에서 이 시대를 ‘회색 쓰나미’ 시대라고 했습니다.

2020년 미국 인구의 18%가 65세 이상이며, 2040년에는 25%가 65세, 즉 4명 중 한명이 65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월터 라이트는 사람의 일생을 3등분 했는데

1.일 삼분기는 0세 ~ 30세까지 2.이 삼분기는 30세 ~ 60세까지 3.삼 삼분기는 60세에서 90세 까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는 인생의 미개척 영역에 맞닥 뜨리며, 우리가 삼 삼분기(60세 ~ 90세)에 들어서면 소명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가능성이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강조하면서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임파워링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니어 임파워링을 위해서는 첫째, 배움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하는 자세가 시니어 임파워링의 핵심입니다. 둘째, 학습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변화에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부해 버리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같은 새롭고 편리한 기기가 인생의 가능성을 넓혀주며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없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쁨은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찾아 온 변화는 미지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삶이 시니어 임파워링의 또다른 핵심입니다.

끝으로 삶의 목표 즉 소명을 재 구성해야 합니다. 삼 삼분기에 들어서면 30년이란 세월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오로지 시니어인 당신의 몫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해

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소명을 재정립할 때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 건강, 재정, 신앙 생활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삶이란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나, 이 삼자의 '삼각 관계'가 우리의 삶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는 “건실한 영적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재정립하게 되면 건강문제, 재정문제, 신앙문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은 패배가 아니라 성공이며, 형벌이 아니라 특권이다” Abraham Joshua Heschel 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은퇴란 단어는 없다” 라고 제임스 M. 휴스턴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니어 임파워링으로 21세기 역사의 무대에서 주역을 맡아 IT시대에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2호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DIAMOND GLOBAL ESCROW, INC.**

**Audra Hong**  
홍훈정 (70)  
Director

22632 Golden Springs Dr. Ste. 160  
Diamond Bar, CA 91765

Cell: (818) 402-2005  
Tel: (909) 860-3333  
Fax: (909) 860-3330  
Email: [audra.hong@diamondge.com](mailto:audra.hong@diamondge.com)

# 이화여고 장학생 감사편지

이화삼각동맹 선배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삼각동맹 선배님들의 장학금을 받게 된 소외된 미얀마 이주현입니다. 무척 저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꿈은 신학과 의사가 되어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지금 멀어지고 있는 곳에 있는 걸인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 어떤 상황이든지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의사라는 직업이 지적능력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배려성, 협동력, 봉사정신 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요, 저는 한때 이화여고 재학때 전과생의 환경보전부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이화여고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아가는 것 같고, 많은 경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전담하는 중합 이해메이(스프린트 어카데미), 핏셀케어, 신약 부원회 등을 통해 전공심,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고, 우정 등을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화여고에 재학 중인 여러 교우를 통해 이들의 별 도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꼭 밝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선배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주현 올림

이화삼각동맹 선배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삼각동맹 선배님들께서 주신 장학금을 받게 된 그해년 선반 엄지윤입니다. 새학기의 파릇파릇한 마음을 감싸안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저를 더욱 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장학금이 아니라 하나뿐 나라 삼각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야함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가진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고, 복안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작년에는 대원대원 첫맛이론만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고난이 왔던 그 일에 긍정적인 면으로 보려는 성향의 발전으로 삶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발전속이 남자인 이화여고 임직원이라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도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시면서 의미있는 대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드립니다. 선배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전하며 사는 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뇌리만큼 승리 날아에서 조로로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노력적으로 향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선배님들께 닿으면 향기로운 날 바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꼭 밝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선배님과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엄지윤 올림

이주현

엄지윤

Dear EWHA,  
August 28, 2023

Thank you so much for this scholarship! I am very appreciative for EWHA's support for my college career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ith this scholarship, I can focus on my studies and my future goals, forging an equitable society with Korean Americans at the forefront. I will never forget EWHA's contributions to my education. I hope to later give back to EWHA as it has given to me.

Sincerely,  
Hannah Sung

## 이화여고 장학생 감사편지

Dear Kwang Sook Kim, Sunny Dow and Donors,

Thank you so much for selecting me to receive the 2023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Scholarship. This is such an incredible honor and I can't express how grateful I am. As such, I hope to show you my gratitude via my future actions, decisions, and successes.

As I continue my studies at UCLA and work to increase my experience such that I may flourish in PA school, I will never forget your generosity and kindness and do my best to pay it forward. This scholarship will undoubtedly help my parents financially and help me focus on my studies, work, volunteering, and research.

Thank you so much again and best wishes,

Sarah Kim

Elizabeth You

Hello, my name is Elizabeth You.

I am one of the recipients of the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Scholarship. I am very grateful to have received this scholarship as I enter my fourth year of college a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Throughout my summer break back home in Los Angeles, I was constantly working a part-time job to save up for rent and tuition for when fall quarter began. Receiving this scholarship has helped alleviate some of the financial worries I had as the fall quarter approaches quicker. I try my best to be as financially independent as possible to lessen and ease my parents' financial burdens. As the middle child of my family of five, living and schooling costs have been financially heavy on my parents. Therefore, I am so grateful to receive this scholarship because it will allow me to support my final stride in my college journey without relying heavily on my parents.

Thank you so much!

Sincerely,  
Elizabeth You

Hello!

I would like to thank the EWHA Girls HS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and Sunny Dow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As a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 we face numerous challenges, and I will be eternall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is prize.

Best Regards,  
Marilyn Benavides



이주혜(75)

## 이빛상을 받은 내 친구 문애리

내가 애리를 처음 만난 것은 벨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였다. 나는 그때 당시 그 중학교에서 특수교육 교사( Resource Specialist Teacher) 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였다. 내가 마침 Main Office 앞을 지나가려는데 어떤 한국 사람인 듯 보이는 분이 Main Office 를 기웃기웃하는 것이었다. 나는 자동적으로 이끌리듯 그분에게 다가가서 내 소개를 했고 그 분 또한 나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 그 분은 한국어 진흥 재단에서 이사장 직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UCLA 교수로 재직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한국어가 보급 되는게 자기한테는 무엇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공립 학교 교육구에 있는 많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 다니며 그 학교에 한국어 반을 개설해 줄 것을 권유하고 다닌다고 하였다.

문애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잠깐 동안이지만 토요 한글 학교에서 한글 과목을 가르쳤던 때가 문득 생각났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사용했던 교재의 인사말을 쓴 사람이 문애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문애리가 이화여고를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었다. 그런데 내 앞에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문애리이었던 것이다.

같은 이화인이라는 말에도 반가웠지만 더욱이 나와 같은 동기 75기 졸업생인 줄은 전혀 몰랐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고 그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애리의 권유로 나는 우리집에서 아주 가까운 애리가 다니는 교회를 함께 다니게 되었다. 예배가 끝나면 이리저리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먹고, 가끔씩은 우리 집에 와서 깔깔거리며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유학 시절 등을 이야기하며 재잘거렸다.

애리는 유난히도 고양이 사랑이 무한한 친구였다. 길고양이 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챙기고, 수술시켜 주고, 심지어는 공원에 있는 다람쥐들이 기다린다고 땅콩 봉지를 들고 공원에 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물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어려움도 항상 앞장서서 그들을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곤 했다. 혼자 살려면 건강해야 된다고 씩씩하게 운동하고 밝게 웃고... 항상 즐겁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친구였다. 교회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분의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과목을 신설하게 된 것도 모두 애리의 도움이었다.



고 한다.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벨리 지역 학교에도 한국어 과목을 신설하게 하고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애국자였다. 유머감각도 뛰어나서 애리 주위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랬던 친구인데 애리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어 그 웃음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문애리는 '미국 초중고 교장단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사 워크숍 및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한국어 교과서 '다이나믹 코리아'를 제작하였고 한국어 에세이 콘테스트, K-Pop 콘테스트, 한국어반 장학 프로그램들을 시작하기도 했다.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서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2021년도에는 공립학교 한국어반 개설에 힘쓴 것에 감사하여 한국어 진흥재단에서 “문애리상”을 제정하였다. “문애리상”의 대상은 한국어 진흥에 기여한 교육 행정가나 교사들을 추천해서 상을 주는 것이다. 이번 2023년에 애리가 학술부문에서 이빛상 (이화를 빛낸상)을 받은건 아주 당연한 일인 듯 싶다.

“문애리가 시상식에 참석을 못해서 성반 대표인 신해림(75)이 대신 상패를 받아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래 사진들은 미국에서 문애리가 참석한 75기 모임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 한국어반 개설 앞장 문애리상 제정

한국어진흥재단 3명 첫 선정  
내달 4일 출판기념회서 시상

공립학교 한국어반 개설에 앞장선 문애리(사진) 박사를 기리는 상이 제정된다.

한국어진흥재단(이사장 모니카 류)은 한국어 진흥에 기여한 교육 행정가나 교사들을 추천받아 '문애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문애리상'을 제정하게 된 것은 문 박사가 수년 전부터 시작한 알츠하이머로 기여를 급속도로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975년 미국에 유학 온 문 박사는 1980년 UC버클리 학부를 거쳐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석·박사과정까지 마친 후 미네소타대 교수로 부임했다가 1990년부터 UCLA 공공정책 및 사회연구대학원 교수로 재임해왔다.

문 박사는 1988년 재단 부이사장직을 맡은 후부터 가주의 초·중·고교를 찾아다니며 한국어반 개설을 권유하고 다녔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1999년부터는 한국어반 확산을 위해 교장과 행정가들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어 교사들 양성을 위해

시작했다.

또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다이나믹 코리아'를 제작해 공립학교에 보급하고 한국어 에세이 콘테스트, K-팝 콘테스트, 한국어반 장학 프로그램 등을 시작하며 재단의 활동 기초를 다졌다.

재단 측은 한국어 진흥에 기여한 교육행정가, K-8 한국어 교사, 9-12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를 추천받아 카테고리별로 1명씩 총 3명에게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문애리상' 후보 추천은 오는 20일 마감된다.

제1회 '문애리상' 시상식은 내달 4일 오후 4시 LA의 헌팅턴 콘퍼런스센터(1324 S. Normandie Ave)에서 열린다.

문의: info@klacUSA.org 백미진 사무국장

장영화 기자






주준탁(63)

## 현 이화여고 김혜정 교장과의 만남

5월 말 한국에서의 60주년 재상봉 행사에 이어서 지난 7월 22일에는 우리에게 또 한 차례의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화여고 김혜정 교장선생님께서 이곳에 사는 따님을 방문하시는 길에 서울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63기 김혜중에게 이화를 빛낸 자랑스런 이빛상(이화를 빛낸상), 그리고 6 자매가 모두 이화를 졸업한 친구 임철자에게 주는 6 자매 상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전달해 주신다고 하여서 이곳에 사는 우리 남가주 63기동창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 18명이 참석하여 이혜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영광스러운 모임이었습니다. 식사는 이빛상을 받은 김혜중 친구가 모두 대접해 주었지요.

다시 한번 이화를 빛낸상을 받은 우리 두명의 동기 김혜중과 또 서울에서 개최한 학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같은 이빛상을 받은 김윤자에게 큰 박수와 축하를 보냅니다. 또 6자매 모두 이화를 졸업하여 이화 6자매 상을 받은 임철자에게도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먼 길까지 오셔서 상들을 직접 전달해 주신 현 이화여고 김혜정 교장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순(53)

## 고등학교 공부시작 한지 3일 만에 6.25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6년제 이화여자중학교에 입학했다. 예수님을 섬기시는 참 인격자이신 신봉조 교장 선생님과 그 분이 선정하신 훌륭한 선생님들의 교훈을 받아가며 우리는 어깨를 활짝 펴고 이화동산에서 자랐다.

그런데 우리가 3학년이 되었을 때 문교부의 시책으로 이화에는 특수 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과 두 반, 문과 한 반). 그래서 우리는 타 학교에서 응시한 학생들과 어울려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얼마 후 합격자들을 위한 입학식이 정동교회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그리고 6월 21일 부터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때부터 한 이화 캠퍼스 안에는 6년제 이화여자중학교와 3년제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있게 된 것이었다.

그 때 한창 미숙했던 나는 ‘장차 위대한 퀴리부인 같은 여성 과학자가 되겠다’ 고 했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드디어 6월 21일에는 고등학교 공부가 시작되었다. 우리 이과 클래스는 실험실이 겸비된 교실에서 부푼 가슴을 안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흘 후 6.25 동란이 터지고 말았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아! 이것이야 말로 한 치 앞을 모르는 인간사가 아닌가!

그리하여 우리 온 식구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무조건 피난 길을 나서야 했다. 어린 동생들은 소풍이라도 가는 줄 알고 강충 강충 뛰며 좋아했는데 그 동생들도 지금은 다 노인이 되었다.

우리는 경기도 광주에 이르러 어느 농가 문간방을 얻어 피난 생활을 시작했다. 식구들이 밤마다 한칸 방에서 마치 뗏목처럼 누워 자던 모습도 눈에 선하다. 곧 집으로 돌아 갈 줄 알았지만 어느새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불을 가지러 가야했는데 한강 다리는 이미 폭파되었으니 나룻배를 타고 가야만 했다. 나는 서둘러 용산구 서계동에 있는 집으로 가서 이불을 가지고 돌아서니 어느 사이 해는 저물고 강가에 오니 나룻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저 아래 보이는 배가 마지막 배라고 어떤 분이 알려 주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가까이에 이르니 사람을 가득 태운 채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밤에 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저 배를 타게 해 주세요”라고 아뢰니 후 무조건 나는 이불 보따리를 배에 힘껏 던졌다. 그러자 배는 마구 요동쳤다. 배에 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제각기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배가 뒤집히면 어쩔려구! …. 잠시 후 말 없이 우뚝 서 있는 나를 보고 그들은 소리 내어 웃기 시작하더니 자리를 이리 저리 만들면서 어서 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울먹이면서 배에 올라타는 나의 가슴에서 이화 뱃지를 본 젊은 이들에게서 “아! 멋진 이화의 학생들도 피난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소리도 들려왔다.(중략)

그 후 부산으로 피난하여 놀며 여러 달이 지났다. 그러다가 문교부의 신문 광고를 보고 가까이에 있는 경남여중으로 찾아갔다. 그 때 본 학교 건물에는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판자로 적당히 막은 야외교실에서 넓은 행이 있는 모자를 쓰고 햇볕을 가리면서 공부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피난 학교요, 피난 교실이었다. 그러나 거기엔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이었지만 6년제 중학생들과 3년제 고등 학생들이 함께 했기에 어느듯 고등학교 2학년의 신분과 중학교 5학년의 신분으로 각각 분리되니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다.

그때 문교부에서 중3, 고3 즉 중-고 3-3년제를 서둘러 확정하여 그 제도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 바로 오늘의 중3, 고3의 3-3년제의 시작의 현장을 우리만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요즘에도 떠나는 배에 이불 보따리를 던졌던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말씀에 감사하곤 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한국 단어로 본 한류의 세계화

신보미(80)

얼마 전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26개의 한국 단어가 한꺼번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중 하나인 오빠(oppa)를 찾아보았다. 정말 있나 하는 호기심과 함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문헌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새롭게 등재하며 전체적으로 약 60만개의 단어가 들어 있다고 한다. 그 엄청난 숫자에 비해 새로 들어간 26개의 한국 단어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전까지는 한글, 김치, 태권도 등 24개만 들어 있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대단한 성취라 할 수 있겠다. 이번에 등재된 26개 단어는 다음과 같은데 한류 문화의 성공으로 나타난 현상임을 여실히 느끼게 한다.

aegyo / 애교	hanbok / 한복	noona / 누나
banchan 반찬	japchae 잡채	oppa 오빠
bulgogi/불고기	K-, comb/K-복합어	
PC bang/PC방	chimaek/치맥	
K-drama/K-드라마	samgyeopsal/삼겹살	
daebak/대박	kimbap/김밥	skinship/스킨십
dongchimi/동치미	konglish/콩글리시	
tang soo do/당수도	fighting/파이팅	
Korean wave/한류	trot/트로트	galbi/갈비
manhwa/만화	unni/언니	hallyu/한류
mukbang/먹방		

옥스퍼드 사전에서 ‘오빠 (oppa)’ 를 찾아보면, ‘오빠’의 뜻을 2가지로 구분해서 써놓았다. 첫 번째 뜻은 물론 원래의 의미이고, 두 번째로는 ‘매력적인 한국 남성. 특히 인기 가수나 배우 - An attractive South Korean man, esp. a famous or popular actor or singer.’ 라는 의미로 2009년 부터 사용되었다 라고 시기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 아마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 전세계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 노래 가사 - 오빠 강남스타일~~~에서 강조된 이 단어가 ‘매력적인 남성’ 의 의미로 널리 받아들여진 듯하다.

오빠 (oppa)와 더불어 2021년에 한꺼번에 이 사전에 올라온 한국 단어들을 살펴보면, 한류 열풍의 영향과 그 방향성을 대강 짐작하게 되는데, 세계에 수출된 많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의 최고 히트작,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유명 가수들의 성공으로 인해 많은 세계인이 한국 문화를 접하며 간단한 한국말을 유행처럼 따라하고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게 되면서 여러 개의 특정 한국어가 국제어로 다가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중 가장 독보적인 존재인 7인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을 잠깐 살펴보자. 2013년에 데뷔한 BTS는 전 세계에 1800만 팬클럽 멤버-아미 (A.R.M.Y.)를 거느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미들은 BTS의 음악 뿐 아니라 BTS 멤버가 출연하는 드라마, 광고, 인터뷰, 온라인 등 모든 콘텐츠를 접하며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아미들이 한글을 읽고 쓸 줄 알며 BTS 때문에 한글을 배웠다고 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인기와 각종 수상 기록 등을 통해 BTS는 한류가 아시아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과 유럽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문화, K-pop 과 더불어 K-food 역시 많은 인지도를 보였다. 옥스퍼드 사전에 새로 편입된 한국 단어에서 한국 음식 관련 단어들도 제일 많이 보이는데, 이는 한국 음식이 점차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즐긴다는 걸 짐작하게 한다. 음식은 그 나라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며 국가 이미지와 관광 산업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다양한 한류 콘텐츠와 먹방 등을 통해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며, 실제로 시도해 보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요즘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코스트코나 트레이더 조 등 마켓에 가면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이 진열되어 있다. 예전에는 dumpling이라고 하던 것도 mandu라 쓰고 Korean sushi라고 하던 것도 이제 Kimbap으로 진열되어 있다. 이런 변화를 보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 음식 관련어가 9개나 첨가된 것도 자연스럽다 하겠다. 재미있는 것은 먹방과 치맥은 최근에 생긴 신조어로 국어 사전에는 아직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한다.

이외에도 한류 열풍을 타고 'K-드라마', '만화', '트로트' 는 물론 한국을 상징하는 'K' 도 사전에 올랐다. '누나', '오빠', '언니' 같은 호칭들도 보이는데 아시아 여행 중에 상점에 들어가면 자주 듣는 말이라서 이미 국제어가 되었다는 생각도 든다.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콩글리시라고 조금은 구박받던 단어인 '스킨십', '파이팅', 'PC 방' 도 '콩글리시' 단어와 함께 이제 당당히 영어사전에 등재 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와 함께 '대박', '애교' 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다. 한국 예능 프로와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대박은 Awesome과 뜻이 유사하지만 애교는 영어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다. 여하튼 이런 다양한 한국 단어들도 국제어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대박이라 하겠다.

우리가 학창 시절 이었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 지구촌은 많은 문화를 동시에 공유한다. 실시간으로 지구촌 여기저기의 소식을 접하고, 거의 동시에 신작 영화를 볼 수 있으며, 유튜브나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한국 한 아파트에서 올린 '애교 만점 고양이' 또는 '10분 건강 체조' 를 전세계 유튜브들이 같이 보며 즐긴다. 이렇게 수많은 콘텐츠가 공유되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세상이며 확실한 장점과 개성 및 창의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문화와 한국 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그 우수성을 드러내며 한류라는 하나의 장르가 형성되고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어 미국에 사는 한 한국인으로서 흐뭇하고 응원하게 된다.

<참고: 이글에 쓰인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발췌한것입니다.>


손장숙(75)

WELCOME TO CINEMA DENTAL CARE

## We Create Beautiful Smiles

Cinema Dental Care, specialized in advanced diagnostics and treatment of dental and oral disorders.



Dr. Jangsook Kim

HOME / TEAM / DR. JANGSOOK KIM



23501 Cinema Dr UNIT 114, Valencia, CA 91355

Phone: (661) 253-3030

www.cinemadentalcare.com



이영희(74)

## K-Language: 개량 한글

K-pop, K-drama, K-food, K-beauty 등 한류 바람이 전 세계에 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말과 한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 것 같다. 곳곳에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고, 꽤 정확한 한국말로 우리 노래를 하는 외국 합창단도 유튜브에 종종 올라온다.

사실 우리의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가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소리 문자라 배우기도 쉽고 워낙 논리적이라 우리 말을 전혀 못하는 외국인들도 소리와 글자가 표기된 표를 보여 주고 가르쳐 주면 곧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원주민들 고유의 말만 있고 글이 없는 인도네시아의 어느 섬에서는 벌써 십년 이상 한글을 가르치고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한글도 보다 세계화가 되려면 좀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언젠가부터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비롯해서 여러 외국어를 좀 더 잘 하게 되는 큰 효과도 있는 일거 양득의 제안이다.

한글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영어의 F 나 V 나 Z 소리 같은 자음들, 또 긴 E 소리 같은 모음들은 우리 말에는 없는 소리들이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는 오늘 같은 글로벌 시대는 물론 상상도 못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매일 쓰여지고 있는 단어들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워낙 많다 보니 그 표기 방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가장 쉬운 예로 영어의 F 소리가 우리 말에 없어서 P 하고 똑 같이 “ㅍ”으로 표기 하는데, 그러다 보니 file 이나 pile 이나 똑같이 파일이라고 쓴다. Fan 과 pan도 둘 다 팬이고 face 와 pace 도 둘 다 페이스이다. Victory도 한글에 V 소리가 없다 보니 빅토리로 적어서 마치 bictory 처럼 발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 쉬운 예로 우리 말에는 R 과 L 을 구별하는 정확한 소리가 없어서 둘 다 “ㄹ”로 쓰는데,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rice 와 lice 를 혼돈해서 말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다.

만약 15세기에 세종 대왕께서 거의 600년 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영어 단어들을 사용할 줄 알았더라면 모음이나 자음을 몇 개 더 첨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를테면 ㄹ 을 추가해서 영어 L 발음에 사용하고, ㄹ 은 R 발음에만 사용한다든가, “F” 소리를 위해서는 영어와 같은 “f” 같은 새 글자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그러면 ‘ㄹ ㄹ ㅣ스’는 lice고 라이스는 rice로 확실히 구분이 되고, pile 은 파일, file 은 ‘f ㅣ 일’로 표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틀리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어 끝에 없는 모음 소리를 첨가하는 실수이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다. 예를 들면 hit 를 힐라고 쓰지 않고 히트라고 쓴다든지 nut 를 널 이라고 쓰지 않고 너트라고 쓰기 때문이다. 분명히 자음으로 끝나게 되어있는 단어들을 공연히 엉뚱한 모음을 끝에 넣어서 다른 단어를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 이 경우는 앞에서 말한 새 글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 아닐까?

모음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영어 발음은 짧은 i 모음 소리와 긴 E 모음 소리이다. 예를 들면, 때리다는 뜻의 hit 와 열이라는 뜻의 heat 는 둘다 우리 한글 표기로는 히트라고 쓰는데 영어 발음은 두 단어가 전혀 다르다. hit 는 “이” 소리가 짧은 힐 이라고 해야 맞고, heat 는 “이” 소리가 긴 히일 이라고 해야 더 비슷하다. 야구 장갑인 mitt 는 “이” 소리를 짧게 밀이라고 표시해야 더 비슷하고, 고기의 meat 는 길게 미일 이라고 해야 더 맞다. It 와 eat, bit 와 beat, lip 와 leap, hip 와 heap, his 와 he’s, pitch 와 peach, hill 과 heal, 모두 다 하나는 짧게, 다른 하나는 길게 주의해서 다르게 발음해야 하는 단어들이다. 가끔 “나는 분명히 맞게 발음한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 들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이 짧은 i 모음과 긴 e 모음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발음이 정확하게 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모든 영어 단어의 한글 표기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보면, 나 혼자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어쩌면 시간 낭비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모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말에 있는 단어는 될 수 있으면 영어를 쓰지 말고, 꼭 써야 할 경우는 될 수 있는대로 발음에 가깝게 표기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리라 본다.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맞춤법이 바뀌는 것 처럼, 한글도 국제적으로 더 널리 쓰일 수 있는 개량한글이 나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내가 갑자기 세종대왕 조수라도 된 듯 우쭐해 진다.

어디에선가 식초라고 하면 좀 격이 떨어져 보이고 “비네거”라고 해야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 같다. 우리 말을 할 때는 우리 말로 확실하게, 영어를 할 때에는 영어로 확실하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바르게 언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이 모범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닌 애매한 단어들을 남용해서 한글과 영어 모두 모독하는 일은 하루 속히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다시 합리적인 영어 표기를 위한 새 글자 몇 개를 제안 한다면:

- ㄹ (영어 l 발음): ㄹ라 이스(lice), ㄹ레 이스(lace), ㄹ라이트(light),
- ㄹ (영어 r 발음): 라이스(rice), 레이스(race), 라이트(right)
- f (영어 f 발음): ㅍㅏ 일(file), ㅍㅑ 이스(face), ㅍㅓ트(fact)
- ㅍ (영어 p 발음): 파일(pile), 페이스(pace), 팩트(pact)
- v (영어 v 발음): ㅂㅓ토리(victory), ㅂㅓ이올린(violin)
- z (영어 z 발음): ㅈㅣ퍼(zipper), ㅈㅣ브라(zebra)

또 모음을 바르게 표기하려면:  
hit(힐)와 heat(히일), mitt(밀)와 meat(미일), hill(힐)과 heal(히일)은 분명히 구별해서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원래 처음 한글이 만들어 질 때도 중국 말에 가까운 소리 4글자가 더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 24자가 아니라 28자였다고 한다. 무엇이든 발전을 하려면 시대의 필요에 따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한식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아름다운 전통 한복도 시대에 따라 개량 한복으로 거듭나서 더 편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이제는 한글도 더 진보된 개량 한글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일단 영어에 필요한 몇 글자라도 첨가해서 사용하다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앞으로 응용해 나갈 가능성이 무궁무진 할 것이다. 그래서 온 국민의 외국어 발음도 더 정확해 지고, 또 한글이 온 세계에 널리 사용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 2023년 남가주 동창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화 코랄

연습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11:30-오후 2:00

지휘자: 강영옥(69) 213-500-1829

단 장: 정은복 (73) 949-338-1229

한인 아그네스 성당

2625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김미례(75)

## 밥을 나누는 한국의 정(情)

나에게는 소중한 두 권의 한국 음식 요리책이 있다.  
하나는 이화 여전에서 1929년 부터 가사과 교수를 하셨던 방  
신영 선생님이 단기 4285년 (서기 1952년) 에 집필하신 「우리  
나라 음식 만드는법」이란 책이고, 또 하나는 이화 56기 장선용선  
배님께서 1993년에 출간하신 「며느  
리에게 주는 요리책」이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법」이란 책  
은 친절엄마가 가지고 계시던 것을  
주신 것인데 종이 가 어찌나 오래되  
고 낡았는지 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마른 낙엽 부서지듯 종이 모서리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가끔  
펼쳐보는 귀중하게 여기는 책이다.  
이 책의 재료를 보면, ‘간장 두 큰사  
시, 밀가루 반 홉, 소금 한 차사시,  
우육 조금, 기름 쓰는데로’ 같은 생  
소한 단어로 적혀있고 만드는 법 또  
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투로  
적혀있어 읽는 재미가 아주 솔솔하  
다. 한편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  
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음식 만들  
때 자주 펼쳐보고 있는 애용하는 책  
이다.

이 책을 처음으로 구입한 이유는 자신이 알고있는 것을 며느  
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제목 때문이  
었다. 재료도 정확한 계량으로 표기되어 있고 만드는 방법은 어  
머니가 말씀하시 듯이 “고추가 없으면 고추장을 넣으면 된다”,  
“이것을 넣었더니 맛있더라” 등 정감있는 말투로 자세히 설명  
해주시고, 또한 가르쳐주신 양념 배합이 정말 맛이 있어서 철  
저히 따르고 있는 책이다.

조선일보 2023.06.17 에 난 장선용 선배님의 기사를 보니,  
아들이 결혼하자 미국에 사는 며느리를 위해 편지마다 조리법  
을 적어 넣었던 것이 모여지고, 그 조리법들이 지인들 사이에  
인기가 있어 서로 복사해 보던 것이 30만부가 팔린 책의 된 계  
기가 된 것이란다. 게다가 장선배님  
은 음식뿐만 아니라 조각보와 한복까  
지 그 분야의 최고들에게 배워 아들  
들 폐백을 양가 130분을 모시고 집  
에서 치루셨단다. 원조 ‘집밥의 여왕’  
장선용 선배님께서서는 “정(情)중에 밥  
정(情) 만한게 어디 있어요?” 라며 한  
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사람들 불러 음식  
퍼 먹이시기로 유명 하시다고 한  
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 밥을 잘 먹  
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더 열  
심히 하시고 배우셨단다. “남편이 왕  
이면 내가 왕비되잖아. 사람이 말이  
예요 좋은 음식 먹어야 순한 사람이  
돼요.” 현명하신 선배님이시다.



출처: 조선일보

젊었을 때는 나름 그래도 열심히  
음식을 했었는데 딸들 분가해 나간  
후 언제부터인지 먹는 것에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 오늘

그냥 적당히 먹을까?” 하며 불평 없는 남편과 적당히 먹기에  
점점 익숙해 지고 있었는데, 근래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  
어보라고 나누어 주시는 분들을 많이 알게되었다. 그리고 나도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이 분들 같이 나누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하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정성들여 맛있게 만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고 정을 나누는 최고  
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든다. 본래 먹을 것이 생기면 이웃과 나  
누어 먹는 것이 우리 한국사람들의 전통이 아니었던가. 어느 누



가 오더라도 식사 대접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이화여고 다닐 때 땅콩 한 알만 있어도 친구와 반으로 쪼개 먹던 생각이 난다.

서 내가 요리솜씨가 안 늘어" 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던 나를 반성하며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월남쌈이라도 만들어주고 찹쌀떡이라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어야겠다. 나도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이웃 친구들을 먹고, 나누어 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밥 정(情)의 한국인이 되고싶다.

선배님의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남편은 반찬 투정을 안 해



## 2023 남가주 이화 거울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화 장학재단 큰 사랑 회장 김영자(57)



권기숙(74)

## KOREAN POWER(‘한류’의 현시점)

얼마 전 한인타운에 있는 한식당에서 모임을 했다.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는 ‘간장게장’ 이었다. 만날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식당을 둘러보는데 평일 점심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젊은 남녀들이 한 테이블에 2-4명씩 앉아 식사를 하고있고 그리 넓지 않은 식당 안은 손님들로 꽉 차있었다. 손님들 중에 한국인이 아닌 많은 타인종인들을 보고 호기심에 먹는 모습을 보았는데 두손에 일회용 장갑을 끼고 ‘간장게장’의 속살을 입으로 쓱쓱 빼먹는 모습에 놀랐었고, 과연 40년 전 내가 미국에 이민와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이런 모습을 상상했을까 싶었다. 새삼스레 ‘한류’(Korean Wave 또는 Hallyu)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한류’에 대해 알고 있을까 의문을 갖게했다.

2세대 한류는 2008년경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K-Pop, Drama, Animation, Online Gaming 등 한국 대중 문화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된다. 특히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으로 퍼져 나가면서 진정한 K-Pop의 대성공 기록을 세운다. 2세대 한류의 대성공 뒤에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계 각나라에서 현지 언어 자막으로 K-Drama, Pop등을 시청하게 되었다.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중앙아시아 외에 터어키, 루마니아, 이란등 중동 지역 국가에도 K-Drama 인기가 많은데 특히



한류의 역사는 1세대와 2세대 한류로 나뉘는데 1세대 한류의 시작은 30여 년 전 1990년대 말 한국 TV 프로그램들이 중국을 선두로 일본, 홍콩, 타이완 등의 아시아권 국가로 수출됐고 그 중 ‘대장금(Jewel in the Palace)’ 이라는 드라마는 최고의 영향력있는 한국드라마( K-Drama)로서 2006년엔 전세계 80국에 수출하였다고 한다. 1990년 말-2000년 초에는 여러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등 아이돌그룹을 결성하여 한국음악( K-Pop )을 중국 등 아시아권 나라에 알리게되었다.

이란에서 ‘주몽’ 드라마가 시청률 80-90%을 보여줬다고 한다. 2019-2022년 코비드-19 팬데믹을 겪는 동안 한국 문화 콘텐츠는 더욱 더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K-Pop의 대표 남성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여성 그룹 블랙핑크와 K-Drama의 폭풍을 일으킨 ‘오징어게임’ 등 과연 K-콘텐츠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계가 좋아하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틀이라고 할 수있는 장르물을 잘 만들면서 또한 한국만이 갖고있는 색깔을 잘 섞어서 풀어내는 독특함이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먹히고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징어게임(squid game)’은 과거 한국이 겪었



던 급격한 자본주의의 이면을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묘사해 전세계를 사로잡았다. 이런 결과로 BTS그룹은 2022년 5월3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로 백악관에서 ‘anti-Asian hate crimes의 증가’에 대해 토의하였고 같은해 Los Angeles시에서 9월17일을 ‘오징어게임의 날’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 모두 아니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일이 생긴다. 2020년 한국영화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는데 이것으로 한국배우 최초의 오스카 배우 수상자가 된다. TV 뉴스에서 이 소식을 보고 50년 전인 1973년, 내가 고2 때 이화여고 노천극장에 ‘특별 손님’이 초대되었는데, 아주 깡마르고 판타롱 청바지가 너무나도 멋있게 보였던 여자 게스트를 교장 선생님은 우리들의 선배 (66기) 윤여정 배우라고 소개를 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윤여정 선배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의 딸이면서 이화의 딸이다.



얼마 전 뉴스 매체 CNN에서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떠오른다고 duolingo라는 언어교육 app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어 수강 인원이 세계에서 7번째 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한국 문화 콘텐츠로 K-Pop, Drama, Movie 뿐만 아니라 K- 한글, 뷰티, 음식 (비빔밥, 김치, 치킨, 떡볶이), 자동차, 한복, 치안, 의료기술, 대중교통, 먹방 등 메가 트렌드가 된 한국 콘텐츠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해준다.

요즘 1주일에 이틀 왼쪽 팔을 위해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물리치료사 Edward가 내가 한국인인 것을 알고는 하는 말이 혹시 BTS그룹에 대해 알고있냐면서 묻기에 그렇다고 하

니 사뭇 흥분이 되어 BTS단원 7명의 이름까지 대면서 멤버 7명중에 2명은 군대를 얼마 전에 갔고 몇 주 전에 3번째 멤버가 군대를 갔다는 등 자기는 방탄소년단의 big fan이며 너무나 신나게 얘기하는 이 미국 청년의 모습이 많이 예뻐보였고 내가 Korean-American인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나는 친정아버지가 계시는 한국을 가능하면 매년 방문하는데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몇 년간 못 가다가 올해 4월에 오랜만에 한국 방문을 했었다. 40년을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가면 어느새 나 자신이 ‘말 통하는 외국인’이 되어가는 것을 해가 지날수록 더 느껴지는데 내 눈에 비치고 경험한 몇가지 한국의 자랑거리를 지나칠 수 없었다.

첫째, IT (information technology) 강국이다: 공항, 지하철 및 카페 등의 와이파이와 무료이며 wifi의 빠른 속도로 공항에서 긴 시간 기다리면서 보고 싶은 동영상 시청과 사진 전송 등의 편리함과 지하철 역과 버스 정거장에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스케줄 시간과 도착 시간을 알려준다.

둘째, 대중 교통의 체계: 나는 한국 방문 시 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데 지하철과 버스가 하나의 ‘교통 카드’로 일원화 되어있고 저렴한 가격과 특히 일정 시간 내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때 따로 요금을 내지 않는다.

셋째, 청결한 공중화장실: 지하철역, 공원 및 고속도로의 휴게소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 시스템에 놀라는데 휴지, 비데 및 향기로운 방향제까지 비치되어 있고 어느 공중화장실은 들어가는 순간 불이 켜지고 비어있는 화장실의 수도 알려준다.

네째, 친절함 시민 의식과 식당 문화: 지하철과 버스에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하여 비치된 배려 좌석이 있는데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임산부, 노약자가 없어도 배려 좌석을 비어두는 자랑스러운 시민 의식이었고, 오랜만에 고향 맛의 한정식을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았는데 계속 빈 접시의 반찬은 무료 리필이 되며,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음식비만 내고 팁을 안줘도 된다는 것이다. 팁은 없어도 일하는 직원들의 친절함에 놀랐다. 이 외에도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스템과 가격대, 안전한 치안 및 배달 문화 등 한국의 높아진 시민 의식과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대한민국 화이팅 !!”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발췌하였음>



이문희(68)

## K-Food 한류

요즘 한류의 열풍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데 한류의 대명사인 K-Food 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한국 음식으로 말하자면 모름지기 한국의 장 종류, 수십 가지도 넘는 다양한 김치들, 각종 효소와 발효 제품등 세상에서 그 이상 좋은 음식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요즈음은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발효 음식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매실 장아찌, 매실 효소, 천년초 효소 등을 은퇴한 이후부터 종종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고 있는데 새삼 우리 조상님들의 음식

아할 기막힌 퓨전음식으로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환상의 궁합을 이룰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Juniper Hills 에 위치한 Weekend House를 장만하여 주말마다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 과일나무를 이것저것 심어놓았다. 열매가 달려 먹을 만하면 새나 다람쥐가 먼저 드셔서(?) 수확하기는 꽤 어렵다. 그나마 홍매실 나무에서 수확한 매실과 그리고 넓적한 잎을 가진 선인장에서 해마다 예쁜



에 대한 지혜에 탄복하며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긴다. 장류와 효소류의 제조법도 상상외로 어렵지가 않고 또한 만들면서 뒤늦게 살림하는 재미도 솔솔 많이 느낀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자주 해 먹는 김치국은 효소류의 김치와 효소 최상의 버전인 된장을 섞어서 만드는 음식인데 맛으로 보나 영양가 면으로 보나 그 이상의 환상의 효소 집합체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서양 음식 중 대표 효소 제품인 치즈와 함께 먹으면 외국 사람도 좋

꽃과 열매가 많이 열려서 그 열매들로 천년초 효소를 만든다. 또한 수많은 향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를 봄철에 따서 깨끗이 씻어 그늘에 말리면 두고두고 향이 좋은 겨우살이 차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옛 어른들이 지혜를 담아 만들어 놓으신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그들의 입맛에도 잘맞는 음식으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 아티스트 심현주의 T.P.O. (Time/Place/Occasion) 메이크업



심현주(69)



많은 여성들이 50- 55세 폐경기를 기점으로 피부에 노화와 얼굴 모양 처짐에 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62- 65세쯤 되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나이든 여성의 화장법은 우아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화장이 우선이다.

첫째, 대부분 피부의 표면은 나이 들어서 잡티가 생기고 주름이 는다. 완벽하게 커버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의 색을 고려해서 비슷한 색상의 화운데이션(foundation), 파우더(powder), 일명 컴팩 트라고 하는 프레스트 파우더(pressed powder) 를 사용한다.

둘째, 부드러운 느낌의 눈썹과 온화한 눈 화장을 과장해서 그리 지 않는다. 강한 문신(tattoo) 은 이미지를 훼손하고 눈썹 색상과 모양 (Eye Shadow/Eyelinor/Eyebrow color/Shape) 등도 손상될 수가 있다.

셋째, 볼 연지와 립스틱도 될수록 그 계절에 맞는 색상과 T.P.O 에 맞게 화장한다면 역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화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노기제(65)

## 영웅시대의 찐 사랑

반응 없는 짝사랑 하던 때가 그립다. 무얼 보고 어떻게 느꼈기에 가슴에 품게 되었던 걸까? 상대방이 나란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의 어머함에 끌리고, 빠지고, 흠뻑 젖어간다. 대부분은 그런 이유를 꺼낸다. 환상이거나, 착각이거나, 오해도 가끔 성분표에 숨겨져 있는 경우도 보았다.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이들에게서 보았을 거다. 대부분 일대일 연애 가능한 상대방끼리 따져보는 사랑 방정식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건 다르다. 나만 혼자서 그가 좋다. 그가 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나를 알릴 기회도 없었고, 그 앞에서 알짱거릴 수도 없이 대면할 찬스가 전무한 일상이기 때문이다.

유명한 연예인, 인기있는 아티스트와 그를 흠모하는 팬의 관계가 그렇다. 정확한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팬들 앞에 선, 단 한 사람의 아티스트에게 천둥 번개의 위력도 제압할 만한 환호와 함성과 기절할만한 열광을 쏟아내는 하늘색 물결의 영웅시대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모든 걸 내어놓는다. 지나간 내 청춘에 이런 느낌, 즉 모두 내어주어 사랑하고픈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르다. 내가 가진 것, 말만 해라. 다 네게 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리라.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내 생명인들 무에 아까우리. 가수 임영웅을 향한 그의 팬들 영웅시대의 목소리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 마음, 아들을 아끼는 엄마의 심정, 동생을 향한 누나의 보살핌, 뭐 그런 마음들이다. 요즘은 오빠부대로 칭할만한 남성 팬들이 늘어나서 형아의 마음,

아빠의 사랑, 궁디 팡팡 토닥여 주는 할아버지의 찐 애정 또한 보태지고 있다.

넌 이미 우리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않았나. 죽을병에 걸려 마지막을 향해 손가락을 접으며 지나던 나날들, 삶의 목표도, 살아야 할 이유도 다 잃고 표정 없이 간신히 숨만 쉬던 날들에 조용히 노래가 들리고 선한 얼굴에 잠잠히 미소지으며,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소곤대는 평범한 한 마디가 우울했던 가슴을 뚫어준다. 급하지 않게 밝은 빛을 비춰준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 부모님을 향해 한번쯤 생각했을까? 배우자를 향해 살짝 계획인들 했을까? 자식을 향해 어쩔 생각은 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생판 남의 자식, 그들에게엔 완전히 타인인 아티스트 임영웅을 향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영웅시대라고 감히 천명할 수 있다. 내가 보고 느낀 확실한 실상이다. 그냥 다 주려 한다.

꺼지지 않는 불길이다. 한번 집혀진 불씨가 자칫 스러지기도 하련만, 3년을 계속 커진다. 타면서 그 불씨에 접촉되어 활활 타오르며 주위에

서성거리는 을씨년스런 마음들을 슬쩍 건드린다. 표시 안 나는 작은 위로가 되더니 급기야는 뜨겁게 포옹해주면서 완전한 온기를 부여준다. 이리와. 함께 따뜻함을 나누자. 소진되지 않는 불씨가 우리 곁에 있다. 너도 느껴봐. 다단계 피라미트 현상처럼 급한 물살을 타고 늘어나는 영웅시대의 숫자다.

짝사랑이 아님을 보게 된다.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 어렵다. 따질 필요 없다. 지금 상태를 주시하면 임영웅을 향한 영웅시대의 마음은 이해하기 쉽다. 노래를 진짜 진짜 잘해서 내 마음 송두리째 빼앗긴다. 잘 생겼다. 귀엽다. 뛰어난 기력지가 정말 모델 같다. 가창력 죽여준다. 삼단 고음이 힘 안 들이고 지붕을 뚫는다. 매사에 진정성을 본다. 착하다. 순진하다. 축구도 잘한다. 심폐 소생술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도 한다. 인간관계에도 의리를 지킨다. 무명시절 함께 한 소속사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이 줄을 잇는다.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 되는 점들이라 영웅시대가 그를 사랑한다. 한편, 임영웅이 그렇기때문에 사랑한다는 이론이 성립되기 전에, 하늘색 물결을 이루는 영웅시대가 존재하게 되었다. 임영웅이 영웅시대에 쩌므로 감사드리고 영웅시대를 전 우주에 충만한 별빛으로 추앙하며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기울여 소중하게 보답하는 사랑을 보여준다. 짝사랑 아닌 주고 받는 참사랑이다. 결론 내릴 수 있다. 임영웅은 그냥 노래가 좋아서 가수가 되었고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영웅시대가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사랑을 모으기 시작했고 힘을 합하기에 열정을 다 하면서, 점점 거대한 임영웅 사랑이 모임 되어 나타난 것이다.

역시, 세상을 향한 선망의 대상은 선하고 착함이다.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한 인간, 착한 사람, 사랑스러운 인격을 지닌 인간이다. 목마른 대중들에게 가뭄에 살짝 비친 단비처럼 나타난 인간이 아티스트 임영웅. 그가 나타남에 그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들은 열광한다. 한순간의 거짓도 없다. 말이 쉽지 숨쉬는 순간순간이 온통 진실로만 채워지기엔 세상이 허락지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임영웅은 그리 산다. 그래서 영웅시대가 그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그들에게선 진정한 사랑이 전해져 온다. 그리곤 물들인다. 세상에선 불가능이라 묻혔던 모든 순간의 참됨이 영웅시대와 임영웅 사이에서 싹이 트고 세상을 덮을 만큼 크게 번져가고 있다. 그래서 나도 참되고 진실되고 순전함에 이끌려 영웅시대가 되고 있다.

강은주(72) Anne Jung



가주 장의사  
California Mortuary

“25년 동안 주인이 직접 운영”

가주 장의사 FD 1648는 1998년부터 가족의 마음으로, 가족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을 위해 저렴한 장례비용, 정성과 성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여의치 않으신 경우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저희 가주 장의사는 다운니에 위치해 있으며 편리한 교통과 넓고 안전한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및 예약 전화번호  
**(562) 622-9393**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E-mail: [Camortuary@gmail.com](mailto:Camortuary@gmail.com)



강미자(62)

## 임윤찬 공연을 보고

지난 8월 1일 LA 의 자랑 Hollywood Bowl 야외음악당에서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의 실황을 보고 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음악 홀 전석을 꽉 채운 가운데 내놓으라 하는 피아니스트조차 엄두도 못내는 어렵고 난해한 이 곡을 19세의 어린 피아니스트가 마치 신들린 듯 광기에 가까운 현란한 테크닉으로, 타고 난 음악성으로, 하루 10시간 이란 초인적인 노력의 결과로 모든 청중들의 가슴과 혼을 흔들어 놓은 훌륭한 연주를 보여 줬다고 생각이 든다.

라흐마니노프 자신 외엔 아무도 도전할 수 없었던 지독히 난



해한 이 곡을, 30년 후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치 만이 연주할 수 있었다면 이 곡이 얼마나 난해한 곡인지 짐작 할 수 있지 않은가? 이 곡을 나이 어린 한국인이 밴 클라 이번 콩쿠르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했고 이제 이곳에서 그의 연주를 보고 들을 수가 있었다.

그가 한국인이라 더욱 더 자랑스러웠다! 양쪽에 설치한 커다란 스크린에 비친 그의 얼굴의 땀방울! 특히 4 막장 끝부분에 현란한 놀림과 얼굴 전체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연주하는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끝없는 박수를 보낼 때에 내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이런 흥분의 함성과 박수 소리는 처음 경험인 듯 했다.

덕분에 쇼팽의 '에튀드 10번' 성악곡으로는 '이별의 노래'를 앙코르 곡으로 들을 수 있었다! 라흐마니노프 곡과 대비되는 극한 서정적인 곡으로 가슴을 적시고 돌아왔다.

이곳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선선한 날씨와 임윤찬의 연주로 조금은 풀게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 임윤찬 연주 관람 후기



박혜경(78)



Hollywood Bowl,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By LA Philharmonic Orchestra 8월의 첫날,

Hollywood Bowl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 초청, 성시연 객원 지휘로 LA Philharmonic Orchestra의 피아노 콘서트가 있었다. 17,500명을 수용하는 대형 야외 극장을 꽉 채웠다. 해가 어스레히 땅거미를 남기며 저물 때쯤, 검정 바지에 하얀색 재킷을 걸치고 임윤찬군이 힘차게 무대로 걸어 왔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자신의 이름을 세계 무대에 알린, 반 클라이번 콩쿨 우승곡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했는데 시작된 손놀림은 잔잔하고 부드러운 도입부를 지나면서 점점 빨라졌다. 지휘자 마린 알습의 말처럼 “심오한 음악성과 경이로운 기교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세밀한 피아노 연주가 관객들을 깊은 감동의 세계로 안내 했다.

3악장의 마지막을 향해가는 3분, 연주가 정점에 다다르자, 빠르게 손이 겹쳐 보이며 연주할 때 긴머리를 훑날리며 건반위를 달리던 연주자의 손이 피아노 위로 높이 솟구쳐 오르며 마지막 finale에 관객들은 한꺼번에 일어서면서 우뢰와 같은 박수와 브라보를 외쳤다. 3번의 커튼콜이 있은 후 앵콜곡으로 쇼팽의 ‘이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임윤찬, 19세의 젊은 연주자가 보여준 에너지는 타고난 재능과 훈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남다른 또 하나의 노력이 있었다. 그의 탁월한 연주를 위해 이 곡을 연주한 호로비츠 영상을 천번 이상을 보았다고 한다. 그날의 연주와 감동은 연주장에 온 많은 한인 이민자에게 큰 위로와 자부심을 심어 주는 것 같이 보여서 나의 마음도 뭉클 하였다.

음악적으로 임윤찬에게 감동받은 나 개인의 생각은 명확한 터치와 투명한 사운드이고, 콩쿨 출신인데도 개성이 뚜렷하게

내성부를 강조했고, 손민수 교수가 그의 지도 교수로부터 책을 읽도록 사사 받은 것처럼, 임윤찬도 그의 스승인 손민수 교수의 영향을 받아 곡 하나를 치기 위해서 ‘단테의 신곡’을 여러번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윤찬은 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연습을 하며, 깊고 심오한 생각을 하며 악상을 만들어 낸 것을 그의 연주에 표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임윤찬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따뜻한 인상과, 천재적인 테크닉, 그리고 악상에 매료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의 외모도 자신의 피아노 연주 분위기와 닮아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의 연주 태도는 맑은 청온함을 소유하면서도 연주시 집중하는 카리스마도 넘쳐흘렀다. 음악에 미친 얼굴, 즉 어린 도인같은 표정이 나의 눈에 비쳐져서 그의 연주에 푹 빠져들게 된다.

뉴욕 타임스 평에 따르면, 임윤찬군을 Virtuoso에 버금가는 연주자라고 평을 했다는 것이다. 일명 무엇이 악마라고도 불려 지곤 한다. Virtuoso란 대부분 기교가 뛰어난 연주자를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연주자는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 한사람은 파가니니보다 한 세대 뒤인 프란츠 리스트를 말하기도 한다. 보통 피아노 악보는 왼손과 오른손으로 되어 있지만 리스트는 세단으로 된 악보를 작곡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연주 규모에 있어서 아쉬운 것들을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날 LA Philharmonic Orchestra의 연주 멤버는 정 멤버가 아닌 단원으로 구성되기도 했고, 첼로 연주자가 5명이었는데, 지휘자의 의도에 따라 그렇게 편성 되기도 하지만, 첼로가 중간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정멤버들이 많이 Vacation을 떠난 것이 아닌가 했고, 보통 현악 파트는 짝수, 2,4,6,8로 편성되어 있고 한사람이 page turn 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날 뒤에 앉은 첼로 주자는 혼자 힘들게 악보를 넘기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임윤찬군의 연주를 계속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손민수 교수를 따라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임윤찬군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응원을 한다.



박(김)영신(67)

## 흙이 빛은 나의 정체성

올해에 두번 큰 그룹전시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LA와 Orange County에서 열렸던 전시회에 동기 친구들은 물론 이화 선후배님들께서 찾아 오셔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어요. 제 작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작품감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 같아 거울지에 몇자 적어봅니다.

5월에 KAWAA (Korean American Women's Artist Alliance) 회원 정기전으로 LA에 위치한 EK Gallery에서 14명의 회원들이 수준 높은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OC에 위치한 Muckenthaler Cultural Center에서 "Generations of Clay" 라는 다소 색다른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1950년대 미서부 흙의 혁명 이후로 현재까지 그 혁명을 일으켰던 도예가들과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2대, 3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한 전시회였습니다. 이 전시회가 저에게 더욱 특별한 이유는 저의 은사이신 1대와 2대의 세 분 작가들과 함께 나란히 작품을 선보이는 뜻깊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950년대에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자기계를 뒤흔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흙을 더이상 실용기물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순수 추상예술을 위해 잠재적 가능성을 실험하는 매개체로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터 볼코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운동이 인간의 욕구와 갈망을 표현한 미국 현대도예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도자기 역사에서도 이렇게 전통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한 시간이 일찌기 15세기에 평범한 도공들에 의해서 소리없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분청사기를 만들어낸 이름 없는 도공들! 철분이 많이 섞인 거친 흙 위에 백토로 분장하고 그 위에 꽃, 풀, 새를 그리기도 하고 파내어 거친 표면을 장식한 분청사기!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심코 그린 그림이 현대 추상화와 감히 비긴다 할만큼 현대적인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보내던 긴 시간동안 흙의 혁명의 자유정신이 나의 피부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나 봅니다. 그러한 눈으로 분청사기를 다시 보았을때 자연스럽게 그 자유로움에 매료되었고 우리 선





조들의 예술,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 틀을 깬 분청의 자유로운 정신이 미국 흙의 혁명이 추구한 추상 표현주의 정신과 연결되며 내게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현대 도예의 벽이 뚫리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나의문화 유산인 이 아름다운 한국 도자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 해석하여 현대 미술의 환경 풍조속에서 한국 흙이 담긴 도자기를 재탄생시키려는 열정이 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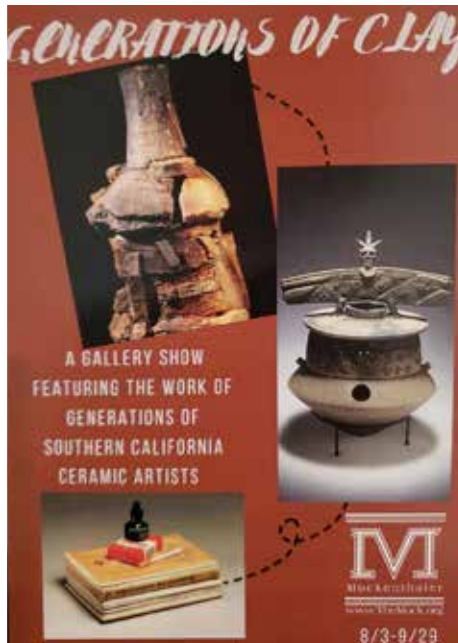
한국 흙이 담긴 도자기, 즉 간결하면서 품위가 있고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 도자기!! 이렇게 한국 전통도자기에서 받은 영감을 불어넣으며 수많은 실험적 작품을 통해서 2010년대 중반에 나의 목이 긴 병이 탄생되었습니다. 목이 긴 병은 미서부 지역에서 제일 큰 도자기 박물관인 AMOCA (American Museum of Ceramic Art) 의 소장품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휩쓸때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했습니다. 강요받은 대화 소통의 단절이 속히 끊어지기를 소원하며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모티프로 해서 태어난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최근 나의 작품은 도자기의 기능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능, 즉 무언가를 담기 위한 것에 집중하며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담아 낼수 있는 지극히 단순하고 공통성과 보편성을 지닌 형태의 작품으로!

도자기를 만드는데는 흙, 물, 불, 공기가 필수 요소이지요. 이 중에서 불은 내가 조종할수 없는 요소인데 유약은 절대적으로 불에 의존하여 불이 만들어내는 색깔입니다. 기대에 벗어날 때는 그동안 수차례 불에 항의하고 거부하였는데 이제 나의 태도는 불이 만들어 내놓는 색깔을 그대로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새로운 유약을 더하여 다시 불속에 넣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몇번이고 불에게 맡겨 놓는거지요.

오랜 시간 흙과 일할수록 휴식을 얻으며 더욱 편하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내 몸이 흙으로 지어졌으니 동일한 재질이어서 일까요? 나를 계속 빚어가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더 깨달아 지기를 소원하며 작고 찌그러진 그릇이라도 정결한 그릇일 때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또 다시 흙 앞에 서게됩니다.



## 남가주 풍경화 단체와 백베이 쇼

원철경(75)

SOCALPAPA(Southern California Plein Air Painters Association) 단체를 소개합니다.

게되면 10~15명 남짓이 모여서 그림을 그립니다.

매년 7월 중순에 Orange County Newport Beach시티의 Back Bay area에서 Back Bay Plein Air Festival이 열리고, 자연보전지역을 관광하는 Muth Interpretive Center의 야외 공간에서 Socalpapa회원들이 부스를 설치하여, 각자 20~30점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합니다. Live Music과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무료 Art Workshop 이 있으며 입장료와 Parking fee 는 없습니다.

NBC, Newport Bay Conservancy, OC Parks의 후원으로, Juried Show, Quick Draw Show등을 개최하여 시상과 격려를 해 주고, 단체에서 판매된 수익금으로 자연보전지역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60명씩 참가했는데 올해는32명이 전시를 했습니다. 유명 Artist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종,직업,나이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인도 더러 있습니다. 주로 retire한 사람들이 많으며 근처 UCI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의 뇌과학이 전공인 젊은 교수도 참여를 했습니다.

SOCALPAPA단체에서는 이벤트도 많고 Hortense Miller Garden(라구나비치 산 꼭대기 / City에서 운영)이나 Black Star Canyon, Bower Museum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도 합니다. 공원이나 Higbee's gallery 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선물과 그림교환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자연의 풍광을 화폭에 담을때에 느끼는 평안함과 감동, 은혜가 넘치고, 자연보전지역에서는 각종 새들과 이름모를 야생꽃들, 오리, 철새, 다람쥐, 바닷가에 다양한 갈매기들을 바라보면 오감이 즐겁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근처 Laguna Beach, Newport Beach, Balboa Island, San Juan Capistrano, Laguna Canyon 등에 자주 갑니다.

연회비 \$65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매주 금,토요일에 그림 그릴 장소를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socalpapa.com 을 검색하세요.



2000년도에 Jeffrey Horn (풍경화가)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만든 단체로 바닷가, 산, 숲속, 성당, 공원을 찾다니며 매주 모여서 그림을 그립니다. 주로 오전에 모이는데, 석양 풍경을 화폭에 담고자 할 경우에는 오후에 모이기도 합니다. 풍경화를 즐기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등록회원은 800여명이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50~60명 정도이고, 야외에 나가

선후배 동창분들과 함께 야외풍경을 그리면 좋겠어요. 하이킹, 걷기도 가능합니다. Post Impressionism의 폴 세잔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바로 야외로 나가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대자연 속에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며 느끼는 감정이 바로 어머니와의 일상을 추억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서양미술사' 수업시간에 들었습니다.

이화여고 형반(미술반) 친구들은 10년간 그룹 '형' 전시회를 개최하며 모임을 가졌습니다. 2016년 마지막 전시는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환갑전시로 치뤘는데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특별히 고3때 미술반이 따로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고)김차섭, 김명희 선생님께 배웠었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있는 형반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고교시절 이야기며 미술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데,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남가주만한 곳이 없다고 모두들 오고 싶어 합니다. 기후 좋고 자연 보존, 생태계의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집을 나서는 순간 곳곳이 그림그리기에는 최적인 남가주 이곳에서 같이 모여 풍경화도 그리고 전시도 함께할 날들을 꿈꿔봅니다.





박원선(80)

## 김옥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라인댄스

20년을 넘게 이곳 LA에서 이화인으로 항상 막내의 자리를 지키며 마냥 어리다는 생각만하다가, 어느덧 60살이 훌쩍 넘어선 내 자신을 보게 되었지요.

몸과 마음이 예전같지 않은것 같아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러던중엔 저희때도 이화여고에서 무용 선생님이셨던 김옥규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Line Dance Class가 LA 에도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원래 흥이 많은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른 운동보다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Line Dance를 배워보는것도 저하고는 잘 맞을 듯하여 시작했죠. 일주일에 3번을 하면서도 레슨비는 또 얼마나 예쁘지요.

벌써 Line dance를 시작한지도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네요. 선생님이 간간하시기는 하지만 정확한 스텝을 가르쳐주시기에 땀이 엄청 많이 나서 라인댄스 하는 동안 몸도 가볍고 또한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추니 마음도 즐겁게 운동하고 있어요. 뿐만아니라, 각각의 곡에 맞춰 다른 스텝을 외워야 하기에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라인댄스로 운동하시는 멤버분들의 나이가 60~70대가 많으신데 모두들 아주 잘 하고 계세요. 저 역시 앞으로 10년은 열심히 스텝을 배워보려 합니다.

나 스스로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밝은 앞날을 위하여...



## 음악과 나의 인생



강미자(62)

어린 시절 피난 길에 큰언니를 잃어버린 생 이별의 아픔이 지금껏 가슴속에 남아 있다. 더군다나 피난 생활 중에 홍역을 앓다 살아나지 못한 동생의 죽음이 조그만 어린 가슴에 기쁨보다는 슬픔을 먼저 알게 했고, 아마도 그것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슬픈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했던 것 같다.

그때부터 난 웃음을 잃어버린 심각한 아이가 되어 버렸고 가끔 여름밤엔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언니 별과 동생 별의 이름을 지어보곤 했다. 무언가 슬픈 멜로디를 머릿속에 지어보면서 불러보기도 했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은 지금도 기차 구경을 할 수 없는 강원도 광산촌에서 보냈다. 겁 없이 서울로 유학(?) 온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기숙사에서 중학 시절을 시작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방 목사님의 자녀들이었고, 마치 어느 영화의 수녀원 생활을 연상시키듯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의 종소리를 들으며 나의 학창시절을 시작했었다. 지금도 가끔 비슷한 종소리를 들을 때면 그때의 향수에 젖곤 한다.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로 기억되는데, 한 방에 있던 상급생 언니의 책 '안네의 일기'를 읽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 감동했었고 바로 나 자신의 감수성이 안네의 감수성과 일치하는 듯한 착각 속에 그를 몹시 사랑한 기억이 있다. 그 덕분에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안네 프랑크의 사진이나 기사를 보게 될 때면 아직도 남다른 흥분을 느끼기도 한다.



무엇 때문인지 나 자신을 슬픈 아이로 생각하기를 좋아했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자라 왔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어선지, 아니면 선천적이기도 한 때문인지 나의 음악은 밝고 명랑한 쪽보다 극단적으로 슬프고 어두운 쪽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쇼팽이나 차이코프스키, 리스트, 푸치니의 음악을 더 사랑하고 있다.

내 마음속엔 싸워야 하는 두 개의 갈등이 있다. 예술의 아름다움에 강하게 감동해버리는 열정과 안이하고픈 게으름의 유희와... 많은 연주자들의 연주를 감상할 때면 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들의 고독을 상상해 본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 뒤에 그들의 엄청난 노력과 투쟁을. 매일매일 많은 시간의 연습 과정은 세상의 편안함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나는 결혼 후 오랜 세월을 음악과 등지고 산 적이 있다. 음악가의 고된 길이 두려워서인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일찍 깨달았던지, 아무튼 쉽게 음악을 포기하고 평범한 여자의 삶을 택했었다. 여자로서의 소소한 허영과 편안함을 만끽하면서 쉽게 쉽게, 하루하루를 살았던것 같다.

그러던 어느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어느 오페라의 한 아름다운 아리아의 선율이 그동안 숨겨 놓았던 또 다른 감각들을 자극시켰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간절함이 다시 어려운 음악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

그 이후 나의 삶은 음악과 더불어 걸어 가고 있다. 명성과 결



과만을 생각하기엔 나는 조금은 철이 든 나이가 되어 버렸고, 나의 모습을 초라하게 볼 줄도 아는 겸손도 세월이 길러 준 것 같다. 그저 다만 내 속에 쌓인 슬픈 생각들과 나의 참다운 모습을 음악으로,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는 희열 때문에 가끔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행복해 하기도 한다. 음악을 통한 나의 생활에서 노력의 과정에서 나는 남은 나의 인생을 완성 시키며 살아가리라.

슬픔을 느끼는 순간에 가끔은 아련한 아름다움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에 슬픔을 느끼기도 함은 나의 지나친 취향 때문만일까. 오늘도 좀 더 완성된 노래를 부르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아 본다. 진정한 예술인이란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 남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 보면서...

- 줄리아드 음대
- 뉴욕 카네기 홀 데뷔
- 런던 심포니 등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공연
- UCLA 방문교수



## 2023 남가주 이화 거울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윤연순(57)

## 짐살라빔



김명옥(64)

빠거덕거리며 말 안 듣는 몸이, 아니 몸에게 미안하다. <내 몸 +> 프로를 보면, 죽음에서 살아 나온 듯한 마음으로 꾸준히 운동하고 몸을 가꾼 승리한 사람들의 실존이 부럽다.

생일이라고 이른 아침부터 친구들의 카톡이 이어진다. 고맙다! 손주들이 온다기에 청소부터 서둘렀다. 현관 입구의 벌레 먹은 화분들을 밖으로 옮기려다 “와장창” 깨트렸다. 장식해 놓은 사기 백조 바구니도, 그 안에 10년 묵은 삶은 부활절 계란도 박살을 냈다. 하필이면 내 생일에, 이 찜찜한 기분이라니... 이력저력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도, 갈비도, 부로콜리도, 두부 무침도 만들었다.

만손녀 세린이가 \$100 지폐 한 장 들고 노래를 한다. 어느새 17살, 드디어 Joann 에서 part time job 를 해서 번 돈이란 다. 고맙구나!

식후에 모여 앉아 딸이 보내 준 선물, Smart Watch를 set up 하다가, 아차! 한 순간에 내 손놀림으로 많은 것들 특히 Kakao 를 지워 버렸다. Log In 하려니... 메모해 놓은 건 찾을 수도 없다.

10여 년을 스스로 알아서 시작해 오던 것이니... 새 전화를 월요일에 마련하고 고쳐 주겠다는 큰아들, 고맙다. 행여나 하며 잠 잘자고 전화를 open 해 봐도 여전히 적막 강산이다. 휴대폰이 내 생활의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세상과 대화를 했던건지 새삼 느껴진다. 이리저리 두드려 봐도 안 열리는 문, 갑갑하고 캄캄하다. 무료한 시간에 T.V. 앞에 앉아 주말 드라마를 “신사와 아가씨”, “이방원” 을 차근차근 본다. Pedometer 도 사라졌다. 온종일 움직이며 몇 발자욱 걷는지 알아 보는게 큰 즐거움이었었는데, 10,000 보를 걸으면 잘했다고 노래도 불러 줬었는데, 손가락으로 세다 보니, 영 성에 차지 않는다.

생일 아침 ‘와장창’박살의 후유증인가? 무엇을 하든 겁이 나

고 조심스럽다. 이젠 또 뭐가?

대추 2개를 들고 깨물어 먹다가 앞니가 손톱조각같이 깨져 나갔다.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꼭 주말에 생긴다. 이젠 또 무슨 법칙일까?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쓰는 건 낯설지 않으니 마스크로 견디기로 한다. 치과 예약도 쉽지 않아 열흘 후에나 의사를 만날 수 있겠다. 친구들의 모임에 급하게 마스크를 걸치고 나가며 중얼거린다.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많이도 누렸던 우리들의 삶, 코로나로 인하여 뒤돌아 보면서 감사함을 새삼 크게 느낀다. 함께 모인다는 것, 모여 앉아 즐겁게 대화하던 시간들이 이렇게나 귀한것임을, 전에는 몰랐었다. 요즘은 코로나도 주춤거린다고는 하지만, 계속 여기저기서 별의별 변이종이 생겨난다고 걱정들이다. 어찌하면 해마다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견들도 들린다. 사노라면, 무슨 일은 없으리요만...

햇빛은 찬란한데 바람도 쌩쌩, 춥다, 손이 시리다. 털모자 털장갑 잔뜩 둘렀는데도 춥다. 눈보라, 강풍 경고가 요란하다. Fireplace에 등 대고 앉아 늦은 아침을 먹었다. 아랫목에 포대기 하나 깔고 발 덮고 앉아 구구마도 인절미도 더불어 먹던 옛생각에 벽난로가 더 따뜻하게 품어주는 기분이다. 남편과 둘이만 앉아 있지만, 오래전 아랫목에 함께 있었던 식구들 얼굴이 어울려 웃고 있는 듯 하다. 기쁨은 마음인가 현상인가? 이쁨은 눈에 보여서, 마음에 두드려져서일까? 사랑은 또 무엇인가? 꺼내서 보여줄 수도, 잘 했다고 상장 받을 수도 없는것 아닌가? 산다는 건 무엇인가? 여기저기서 망가지는 보여지는 아픔과 미래는 미래에게 걱정하라 하며, 오늘을 찬란하게 휘황하게 보내는 사람은 그저 즐거워 해도 아무 거리낌 없다는 한판승일까?

나(너)란 누구, 무엇인가? 짐살라빔-수리수리 마수리.



손장숙(75)

## 스카이 워크 (Skywalk) 라고 아시는지요?

스카이워크를 직역하면 “하늘 걷기”가 된다. 그러면 “구름다리”라 말할 수 있을까?

올 여름 7월에 열흘 동안 딸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이 딸은 나의 네 아이들 중에 첫째로서 장녀이다. 이제 9월이면 미국나이로 만 40살이 된다. 자기의 40세 생일을 옛세 앞두고 드디어 결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하여 나가기 전에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었다.

그녀는 지금껏 나와 함께 살았다. 처음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여 글렌데일에서 혼자서 잘 살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일 때문에 한국으로 옮겨서 살

우리 교회 같은 구역에 있는 집사님이 함께 사는 성격이 강한 첫째 딸과의 갈등을 드러내 놓고 말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직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 회사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며 열심히 일했을 때가 40 안팎일 때였어요. 그러니 40이 된 따님이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예요. 우린 이제 젊은 사람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면서 사는 걸까? 사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때까지 일을 하고 바빠 살아서 살림을 잘 할 줄 모른다. 특별히 청소에는 어렸을 때부터 유별나게 아주 소질이 없었다. 책상 정리하다가 묵은 편지나 책이 나오면 주 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보곤했다. 청소를 시작하여 끝까지 끝 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



게 된 와중에 이 믿음직스러운 큰 딸에게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고 딸은 선심 쓰듯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집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여 나의 느지막한 나이의 시집살이가 시작됐다. “엄마, 물건을 하나 사면 하나는 버리세요. 음식은 한국식과 양식을 섞지 마세요. 엄마는 아줌마 할머니처럼 왜 이렇게 크게 웃어? 얘기를 하다가 주제를 자주 바꾸는 게 천상 아줌마 스타일이야. 엄마, 가드닝은 그만하고 그 시간에 집안 정리하세요. 집 안에서는 신발을 신지 말고 꼭 실내화로 바꿔 신으세요. 실내에서 신는 신발로 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아이들 네 명을 연년생에 쌍둥이까지 낳았다. 그리하여 4년 사이에 터울이 별로 없이 4명이 있으므로 모두가 함께 같은 하이스쿨에 다니는 기록까지 가졌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구해서 살았다. 내가 39 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여기에서는 사람의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는 다시 치과대학을 다니라, 그 이후에 취직해서 일하라, 개업하여 자리 잡느라고 열심히 일하라 하는 동안에 유난히도 크고 책임감이 강한 첫째가 동생들을 모두 돌보고 키웠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동생들의 보스일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엄마에게도 강한 보스가 되곤 하였다.



이제 렌트 비도 안 내고 함께 살면서 나에게 보스 노릇을 하던 우리 큰 딸이 드디어 출가를 한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함께 여행을 간 것이었다.

캐나다의 제스퍼(Jasper)에 머무는 동안에 컬럼비아 아이스필드(Columbia Icefield)를 방문했다.

일년 내내 두꺼운 층의 얼음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지형을 글레시어라고 한다. 이 글레시어가 여러 개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아이스필드라고 이름이 붙는다. 제스퍼에 있는 유명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를 구경하고 내려오는 티켓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코스인 “스카이 워크”이다. 글레시어의 끝자락에 연결된 캐년에 인공적인 연장물인 아치형태의 투명한 유리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그 위를 걸으면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보이는 골짜기와 나무들과 땅덩어리를 아찔하게 즐기며 걷게 만드는 인공 조형물이다.

셔틀버스에서 내려서 티켓을 내고 캐년의 림을 따라 한참을 걷는다. 투명유리의 재질을 전시해놓았고 근처의 야생동물들의 사진을 설명을 붙여 전시해놓기도 하였다. 막상 스카이워크에 도착하여 까마득히 멀리 내려다보이는 침엽수림들과 땅바닥을 쳐다보니 현기증이 났다. 사이드 난간을 겨우 붙잡고 한 발. 한 발. 옮기다가 손잡이가 푹 떨어지는 바람에 질겁을 하고 놀랐다. 사이

도 된다는 옵션이 있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래, 맞아. 우리네 인생은 스카이워크의 연속이었다. 이것은 우리네 세대의 몫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세대까지의 몫이라고 하겠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고, 동족상쟁의 육이오 전쟁(civil war)을 겪은 세대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 돌아가시고 있다. 가난과 그 많던 고아원들... 한 반에 80 명이 넘었던 국민학교 교실과 회충약 먹기, 쥐꼬리 가져오기 숙제... 그리고 새마을 운동, 월남전과 맹호부대 용사들, 중동진출, 통행금지와 반공 표어들, 데모와 휴교, 전경들, 정치적 소용돌이..

여행을 다녀와서도 또 한 번의 스카이워크를 치르느라고 애를 썼다. 환자의 팔에서 피를 뽑아서 의료용 원심분리기에 돌린다. 그리하여 단층별로 분류된 성분에서 성장물질이 들어있는 흔히 말하는 스템셀을 찾아 모아서 임플란트에 적용하는 과정의 “스카이워크”를 드디어 해 내었다. 남들은 리타이어하는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익숙하지 않은 블러드 드로우(blood draw; vein puncture) 하기가 정말 싫었다. 그러나 성공하고 싶었다. 임플란트 치료를 확실하게 성공시키는 그 술 식을 해내어야만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 손잡이의 연결 마디에 짧은 공간이 있었던 것이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이젠 용기를 내어 발자국 밑으로 보이는 풍경을 비디오로 남기기로 작정을 하고는 셀 폰으로 찍기를 시작하였다. 정신도 차려지고 숨도 점차로 골라져서 발자국을 천천히 옮기다 보니 어느새 거의 다 지나온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가 고개를 들고 바라다보니 앞의 다리 밖에서 내 딸이 나를 보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정신없는 스카이워크를 그녀는 참여하지 않았고 나 혼자서 했던 말인가? 나는 그것도 몰랐다. 두려움에 너무 집중을 해서 시작을 하고 끝내야 한다고 알았으므로 정신없이 혼자서 투쟁을 했던 것이다. 돈을 내고 산 표에 안 해

내 딸은 스카이워크를 무서워 하며 걷고 있는 엄마를 그 순간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녀는 엄마하고 길었던 캐년림의 긴 진입로를 걷는 동안에 나는 안 할거야 라고 결정한 것이었고 나는 그런 옵션이 있었음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 정확히 자신을 파악하고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한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아니다. 그러기에 만사를 쉽게 해결하고 깔끔하게 일을 끝내놓는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일 게다.



## 이화인 동서와의 가족여행

박선희(70 LA거주)와 신해림(75 부산거주)

이화인이 6명이나 되는 우리가족의 대표로 이 글을 씁니다.  
 첫째 동서: 이선희 (69), 둘째 동서: 박선희 (70), 셋째 신해림 (75), 시 삼촌의 딸 하현영 (76), 신해림의 세째 딸 하채은 (08)과 둘째 딸의 시어머님이신 이기남 (67)  
 이 글은 1943년생 두 아주버님 (큰형님과 큰매형)의 80세 생신을 축하 드리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내 남편의 6남매 (4남 2녀) 가족들의 재상봉을 겸한 2박 3일 여행 일지입니다.



아내트 관광농원

성공한 80대 남성이란 본처가 아침식사를 차례주는 경우라고 한다. 들은 대로라면 두 아주버님은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사신 분들로 모두 cancer survivor이다.  
 20년 전인 두 아주버님의 환갑 기념 때 6쌍의 부부들이 같이 일본 여행을 한 이후부터 각 집안의 혼사 때는 형제들 reunion을 겸해서 거의 대부분 6 남매 couple들이 참석하곤 하였다.  
 2014년 2월에는 둘째동서이신 박선희(70) 형님의 아들 (그 당시 USC 정형외과 근무) 결혼식 참석을 위해 LA에 갔을 때 친구 주혜를 이화여고 졸업 후 처음으로 만났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치러진 우리집 딸 혼사때는 COVID-19으로 인한 2주간의 자가격리 때문에 LA에 사시는 미국 거주 친척분들은 대부분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2023년 2월 서울에서 큰매형과 조카식구들, 딸들과 모여 식

사를 하다가 두 아주버님의 80세 생신축하를 위해 가족들이 같이 모이자는 제안에 모두들 찬성하여 8월 첫째 주 주말에 강원도 홍천계곡에서 여름 휴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가족들에게 공지를 하고 미국과 한국에 흩어져 사는 6 남매 가족들에게 휴가기간을 맞추어 보라고 연락하였더니, first generation이 여섯가정, second generation이 일곱가정, 모두 합해 35명이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서울과 부산에서 2-3차례의 가족회의를 하면서 예산, 숙박하는 장소 예약, 야외에서의 놀이와 오락들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가족 그룹채팅방을 만들어서 매달 NJ와 LA의 여행 스케줄에 관한 updated information을 서로 공유하였다.  
 대식구의 숙박을 위해 first generation들은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설해원 콘도숙소를 예약하고 second generation은 홍천군에 위치한 관광농원에 숙소를 예약하였다. 모임장소로의 이동은 각가정별로 사촌들과 동행하여 금요일 저녁에 도착하도록 하고아침 식사는 관광농원에서 부탁을 하여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



2023년 8월 5일 강원도 바다 풍경

7월 중순부터 NJ에 사는 작은 누나 부부와 딸 가족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한국에 오기 시작하면서, UCLA 교수부부의사인 큰형님네 아들 가족도 휴가일정을 변경하여 7월 마지막 주에 한국에 도착하고, 8월 4일에는 LA에서 수의사를 하시는 둘



째 동서 박선희(70) 형님 부부가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그 분들을 모시고 강원도로 바로 떠났다. 부산에서는 큰누나 부부와 막내 부부가 한팀으로 강원도로 오는 길에 대구에서 골프를 치고 오고, 우리 팀은 NJ 작은 누나팀과 같이 가는 길에 “미산막국수” 식당에서 손두부, 감자전 막국수를 맛있게 먹고 (한국 시골 고향의 맛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 너무 맛있다고 함) 아내뜨 관광 농원에 들러 사장님 부부와 인사하고, 자세한 일정을 의논 한 후 우리들의 숙소인 설해원으로 향하였다.

금요일 출발팀은 예정시간에 각자의 숙소로 잘 도착하였는데, 큰형님 내외 모두가 COVID-19양성으로 참가를 못하여 가장 아쉬웠다.

토요일 오전에는 아이들과 보호자 역할을 하는조카들은 함께 내린천에서 rafting을 하였는데,비가 많이 오지 않은 탓에 수위가 낮아 재미는 없었지만 rafting을 마친 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자기 가족과 데리고 갔던 강아지와 함께 물놀이를 하여 좋았다고 하였다. 골프는 3조 12명만 가능하여 그분들만 화씨 92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에 rounding을 하였으며, 4개월된 손자와 rafting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아이들과 엄마들은 온천 휴양소에서 수영 하고 사우나도 하면서 쾌적하게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아기와 어린이 덕분이라고 감사했다고한다. 저녁시간에는 세대별로 나누어서 COVID-19기간 동안 만나지 못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8월 6일 일요일 아침에는 아내뜨 관광농원에서 직접 채취한 각종 무농약 산나물과 직접 만든 도토리 묵으로 아침을 차려 주어서 산채 비빔밥을 배불리 먹고 산장내 위치한 계곡에서 피서를 했다. 계곡의 물이 너무 맑고 청량하여 한여름 더위를 식히기에는 정말로 안성맞춤이었다. Main event는 각자 맡은 바대로 준비해온것을 꺼내어 80순 생신 축하 뒷배경을 걸고 decoration, table setting, BBQ 요리도 하였고, 새로이 DRONE



manual을 공부하고 온 막내 삼촌 (중동 정치학을 전공한 퇴직 직전의 대학교수)은 DRONE을 열심히 작동하여 아주 맛있는 관광농원 전경과 단체 사진을 찍어 주었다. 참가를 못한 큰형님 내외는 Video Call로 연결하여 축하노래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기념 케익을 놓고 단체 사진을 찍은 후 멀리 부산으로 떠나야 할 팀은 떠나고 LA 둘째 동서, 박선희(70) 형님이 준비해온 Paella 재료 (rice and Greek Red Saffron) 와 부산에서 live seafood로 장만한 해물로 Paella 를 만들어서 남은 식구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서울로 떠났다.

모든 가족들이 서로 도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주었으며 지난 3년간 만나지 못하여 남겨두었던 가족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다시 한번 가족들간의 만남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와는

5년 선배인 둘째 동서는 아이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포함)에게 한국을 알도록 해주는 일을 꼭 하고 싶다며 2024년 6월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자세한 일정은 같이 의논하면서 정하고 있다. 내년 6월에 다시 모두 만날 날들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미국 (LA and NJ) 과 한국(서울 과 부산)에서 흩어져 생활하는 가족 중 32명이 참여하는 가족 채팅방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커가는 사진과 같이 모여 여행한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가족간의 형제 자매사랑을 대(代)를 이어 지키고자 애를 쓰고 있다.

형제, 자매 사랑에서 조카들을 사촌을 넘어선 형제 자매애로 키우고자 하는 시대 식구들의 한여름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섯 남매 (4남 2녀) Ha Family (진양 하씨) 가족모임 이야기였습니다.

*신해림 (75): 이대의대79졸. 의과대학교수 (인제의대, 동아의대), 국립암센터,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Lyon France), 서태평양지역사무소(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Manila, Philippines) 등 40년간 근무를 마치고 2021년에 정년퇴직*



김정자(64)

## 음악을 사랑하는 이화인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슬프게도, 평화롭게도 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합니다.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와 용기를 줍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성악도의 길을 도전하시는 아름다운 이화인의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남가주 한인 합창단의 단장으로 활동하는 김정자(64)는 금년 7월 28일 울타리 선교회 에서 주최하는 제 24회 Annual The Well Mission Concert 에 참가하여 Walt Disney Concert Hall 에서 연합 합창단으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그리운 고국' 이라는 주제로 Orchestra 와 연합 합창단의 합연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음악과 노래를 가까이 하면서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 이화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사회



정기 총회



각 기대표



광복절 기념행사





확대위원회



독립유공자  
홍훈경(70)



문지현(73)



장성  
피아니스트



송년회



저희 걷기반을 시작한지도 8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코비드 때문에 모이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반에 Griffith Park에서 모여 걷고, 또 picnic area에서 아침 식사를 즐겁게 하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합니다. 새로운 음식 메뉴, 맛있는 식당 찾기, 건강 관리에 필요한 의료 정보, 각자 여행하고 돌아온 재미있는 얘기들도 하며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고 서로가 준비해 온 homemade 식사를 합니다.

요즘은 다리가 조금 불편한 분들은 평지에서 쉬엄쉬엄 걸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천문대 거의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걷는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웬만한 보슬비에는 우산을 쓰고도 걷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비록 산에는 못 올라가도 우리 걷기반 회원 집에 모여 번개팅 하며 떡국도 끓여 먹고 즐거운 담소를 하고 헤어지곤 합니다.



## 걷기반 동아리

백혜란(70)

선후배님들의 사랑으로 회원들에게 닥친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많은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격려하며 걷기반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걷기반이 매주 모이는 장소는 웨스턴 길을 따라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오다가 왼쪽(Fern Dell)으로 들어와서 조금 올라오면 왼쪽에 있는 Trail Coffee Shop이 보이는데 그 건너편에서 모입니다.

우리 걷기반 동아리에 동기 동창 및 선후배님들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단장 이윤경(69)

##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

배꽃같이 희어서 맑고 깨끗한 사랑의 공동체!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은 1991년 9월 7일 로스앤젤레스의 베델 장로교회에서 발족하였다.

합창단 초창기 시절에는 대부분의 동창들은 이민 1세들로 열심히 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화 울타리 안에서 함께한 이우근 선생님을 지휘자로 모시고 선후배 동창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모여 노래를 부르니 선후배간의 정이 돈독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에 활력소와 위로가 되었으며,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여해 주는 동창들께 감사드리며 누구든지 같이 모여 노래하자는 취지로 합창단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올해(2023년)로 32년을 맞이하는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은 128회의 크고 작은 음악회 공연을 해 왔다. 정기 연주회와 동창회의 이사회, 총회, 연말 모임과 북미주 연합 동창음악회 그리고 18번의 미션스쿨 동창합창제, 7번의 이화배재 사랑의 음악회, 실로암 시각장애인 자선음악회등, 여러 찬조공연과 서울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에서 개교 110주년과 125주년 연합 합창음악회,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었던 제 4회 이화여고 연합 동창음악회, 2번의 뉴욕 링컨센터에서 가졌던 음악회, 2012년 8월 23일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한 이화 콘서트, 2013년 금난새 희망음악회 협연을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가졌었다.

이 모든 행사들이 거의 1년에 한번씩 또는 2년에 한번씩

행하여 졌는데 코비드로 인해 2019년부터 모임과 모든 행사가 중단 되었다. 그러나 2022년 샌프란시스코 북미주 연합 동창합창제를 기점으로 2023년인 올해에 비로소 모임들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하여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도 2023년 3월부터 다시 모여 합창 연습을 하고 있으며 더욱 더 열심히 모이고 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몇몇의 새 단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보이지 않는 활력이 되고 있으며 서로를 더욱 더 배려하고 보듬으며 아끼고 있다. 앞으로 많은 동창들이 동창합창단에 오셔서 노래 부르며 즐겁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선후배간의 따스한 정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은 2023년 9월 17일(주일) 오후 5시 30분 나침반 교회에서 갖게 되는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주관 이웃돕기 “사랑의 찬양제”에 참석하여 어려운 이들을 도우는 일에 동참하며, 또한 그동안 멈추었던 배재와 함께 해 오던 “합창제”를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평안교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동창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이 동창합창단에 큰 힘이 됩니다.

남가주 이화여고동창 합창단에는 귀중하고 보배로운 석재희 지휘자와 박철헤렌 반주자가 있다. 석재희 지휘자는 79기로 우리 이화여고를 졸업했으며 학창시절 2년동안 학교 전교생 모임의 총지휘를 맡아서 지휘를 했던 재원으로 이화여대 음대 졸업, HIU 음대 대학원에서 지휘전공으로 졸업했다. 현재 활동으







연 습: 매주 토요일 9:30 am- 12:00 pm  
 장 소: 미주 평안 교회  
 170 BIMINI PLACE  
 LOS ANGELES, CA 90004  
 지휘자: 석재희 (79) (714)452-7600  
 단 장: 이윤경 (69) (213)675-0725  
 부단장: 백혜란 (70) (213) 247-4524

로는 엘에이 주님의 영광교회 본 성가대 16년째 지휘자로 활동,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 지휘자로 7년째 활동, 조이 피아노 스튜디오 운영(피아노와 상담치유 활동)을 하고 있다.

박헬렌 피아니스트는 USC 에서 피아노 전공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다. 우리 동창합창단과는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1년간 우리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는 인랜드 교회와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회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앞으로도 동창회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유 사랑 평화로 길러워진 이화인인 단원들은 고운 소리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관용, 협조, 인내를 배우며 약한 이 힘 되고 어둠의 빛 되는 배꽃 같은 사랑의 공동체이다.



# 문화 탐방 모임

김미례(75)



지난 6월 22일에는 Pasadena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숨은 보석이라고 명칭을 받는 Norton Simon Museum을 방문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야외에서 점심 먹기에 좋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아름다운 sculpture garden에서 20명의 이화 동창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고 유명한 화가들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여유있게 감상하였습니다.

Norton Simon Museum을 방문하며 이렇게 좋은 그림들을 수집하여 여러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박물관까지 만든 부자들이 남가주에 여러명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Huntington, Paul Getty, Norton Simon, 또 몇년 전에 작고하신 The Broad Art Museum의 Broad까지 돈을 멋있게 쓴 사람들이지요.

영국이 전성기였을 때, 영국 귀족들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유럽 전역에 걸쳐 고대 유물을 수집하는데 경쟁이 치열했다는 불편한 역사를 들은 기억도 떠올려봅니다. 놀라운 새 아

이디어로 끊임없이 창작을 계속해 나가는 예술가들과 그 작품들을 알아보고 수집한 수집가들과 또 그 작품들을 보고 감동으로 마음을 설레하는 우리들 모두 역사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해 보며 동문들과 함께 나누는 이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고 감사합니다.

8월 1일에는 Hollywood Bowl에서 한국의 자랑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3 번 공연을 우리 이화 30명의 동문들이 함께 감상하며 추억에 남을 멋진 여름밤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전시회나 연주회등이 있으면 열심히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혹시 문화 탐방 장소로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감사히 받고 참고하겠습니다.

10월에 있을 문화 탐방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 골프 모임

권선희(75)



이화 골프가 4월17일에 Rio Hondo Golf Course 에서 많은 선배님들을 모시고 열렸습니다. 저희 75기가 회장단을 맡은 후 가진 처음 공식 모임이어서 더욱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수고해주신 74기 선배님들께서 역시 많이 참가 해주셨고 또 72 기의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참석 해주셔서 본의 아니게 두 학기 간에 작은 대회가 열렸고 결과는 74기가 종합 12타 차이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승 상품으로는 이화 Logo가 새겨진 예쁜 Golf 공을 드렸습니다.

합심하여 동창회일들을 잘하신게 아마도 동기들끼리 잦은 골프모임 덕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Group 우승 이외에 Medalist는 최은화 (74), 장타상은 최정희(74), 그리고 근접상은 최한희 (64) 선배님께서 하셨습니다.

참가 하신 14분들에게 Foot Cream, Hand Cream 그리고 Logo golf 볼을 골프치실때 가지고 다니실수있는 작은 방수되는 가방에 넣어 드렸는데 정말 많이들 좋아 해주셔서 보



람있었습니다.

올해에 큰 맘먹고 우리 이화 Logo를 넣은 골프공을 제작하였습니다. 초록, 노랑, 회색과 짙은 남색이 어우러진 배꽃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선배님들 모두가 너무 좋아해주셨어요.

골프란 운동은 많은 인원도 같이 즐기는 운동이기도 하지 만 어찌면 나 자신과의 게임이기도 하죠. 20여년 전의 우리 이화 골프 모임엔 매번 40 -50 명씩 모여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골퍼가 계신것으로 압니다. 예전같이 많은 선후배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골프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 가을 골프는 9월 19일 화요일에 만납니다. 보다 많은 선후배님들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즐거운 시간 가질수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Best Dresser 를 포함하여 더 많은 상과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니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 이화코랄이란?

박기순(65)

이화코랄은 이화여중고 졸업생들로 구성되었고, 미국 로스 앤젤레스에서 조직되어 교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이화여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합창단이다.

69년 졸업생 강영옥을 지휘자로 추대하여 작은 무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하면서 척박한 이민 생활에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자 단원들을 모은다. 소리를 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지휘자의 음악에 대한 과욕으로 인해, 일부 회원들은 높은 음악적 전문성에 덜컥 겁을 먹기도 한다.

단순한 여고 동창생들이 뜻을 합해, 적당히 즐기고 편하게 헤쳐 모여를 행하는 쉬운 합창단은 아니다. 무료하게 일 년에 한 번, 동창회 모임에서 두어 곡 부르는 행사로 끝나는 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하게 교민사회에서 행사를 챙기는 국경일 때마다 이화코랄의 공연이 빠질 수는 없다. 더구나 대선배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삼일절 행사에서, 흰 적삼에 검은 치마와 한 가닥으로 땀아 내린 머리로 통일하고 해마다 무대에 설 때만큼은 이화 졸업생으로서의 자긍심은 하늘을 찌른다. 가슴이 뭉클 뜨거워지면서 아주 잠깐 뜨거운 나라 사랑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 어린 나이에 어찌 그런 애국심으로 일본에 항거할 수 있었을까! 바로 대 이화여고의 교육이 밑거름 되었을 터. 그 교육을 베푸신 이들의 근본은 거슬러 하늘에 이르름을 깨닫게 된다.

이제 이화코랄의 나이도 청소년 시대는 아니다. 중장년 시기도 지났을 지긋한 연세로 접어든 현실이지만 실력만큼은 그리 쇠하지 않고 있다. 악명(?) 높은 지휘자의 극성으로 늙을 틈이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이 합하여 날마다 기도로 사랑을 키운다.

서로를 챙겨주고 기도로 응원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 하늘로 올려드린다. 인간의 삶 자체가 녹록치는 않지만, 네가 있고 내가 있어 서로 어깨를 기댈 수 있다면 무에 그리 힘든 시간이 쌓이겠는가. 우리에게겐 풍성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각자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는가.

이유를 쫓 수 없는 증상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어도 이화코랄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고 기쁘다. 함께 앉아만 있어도 힘이 되는 단원들의 고운 마음들이 어떤 병마라도 다 깨부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 문제로 회복 중인 단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실 것도 믿으며 기도한다.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오는 어미새처럼, 부족한 단원들의 실력을 키워 주면서 쉼 없이 공연 계획을 줄 세우고 있는 지휘자의 섬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매주 연습이 지나치게 빠듯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것이 이화 코랄이다.

이화여중고를 졸업한 여성이라면 졸업년도에 상관없이 이화코랄 단원이 될 수 있다. 노래 실력은 지휘자가 만들어 준다. 음치여도 입단 가능하니 달려오기를 재촉해본다.



## 이화인의 재능과 열정을 펼치실 수 있는 무대로 동문들을 초대합니다

아그네스 한인성당, 월요일 오전 11:30- 오후 2:00

지휘자: 강영옥(69) (213) 500-1829 | 단장: 단장: 정은복(73) 949-338-1229




## 민화 교실 / 메이크업 교실

심현주(69)



**민화 한국화 공중회화**  
 민화부터 채색화, 공중회화를 다양하게 배우고 한국의 색을 채색하여 고유의 미를 자랑하는 민화 공중화를 그려서 나만의 장식미술을 표현해보세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자하는 이화 선후배들의 미술실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더불어 삶의 활력과 보람을 작품으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 생활취미 방문레슨합니다  
 1. 민화 아트 개인방문 레슨  
 2. 메이크업 개인방문 레슨  
 Covid 19 때문에 개인방문 레슨으로 전환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예약번호 213-458-0790

제 22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축하드리며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남가주 동창회장 장현주(75)

지혜로운  
이화인 가족들의  
멋진 이야기 모음

“마땅히 행할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love,  
peace,  
and music

Since 2022 3.21

평화를 위한  
화목 음악회

Concert for Peace  
Tues & Thurs

주최: 여중부리, 여중다동

일시: 2023. 3. 21부터 다시 시작  
시간: 매주 화목 오후 12시 30분  
장소: 여중아고 및 정동길

반성에 더 담고  
창조를 우리집에  
'23.9.12 - 9.15

이화  
미술전

2023.9.12 - 9.15  
12:00 - 5:00 PM  
12:00 - 5:00 PM  
12:00 - 5:00 PM

이화여자대학교  
YONSEI UNIVERSITY

大亦久會館下馬

# 55

홍연숙

우리 55기 동기는 코로나 이후에는 동기 동창 모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미 80대 중반이 넘어서 기동력이 부실해진 거지요.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전통적 노인의 관념의 틀을 깨는 놀라운 여성들도 있으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라!

요즘 우리 55동기는 10명의 카톡방을 열고 매일 즐거운 덕담과 동영상, 웃음보따리, 흘러간 옛노래, 짝사랑하던 옛 가수 등,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울지를 위하여 각자의 소식과 동창 관련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묵묵 무답이고, 한 명이 착실하게 답이 왔어요. “기대표, 수고가 많으시네요. 난 다리수술 후에 아무 활동도 못하고 있어서 보고할 것이 없네. 죄송.” 그래도 이렇게 답장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렇다고 우리 동기에게 뉴스거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랍니다! 우선 여기 올린 사진들을 보세요. 지난 4-5년간 동기 동창모임이 없었으니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몇 명씩 따로 찍힌 “근황 사진”을 제출한 거예요. 두 번째 사진에 멋지게 모자를 쓴 동창이 있지요? 바로 그 친구가 “틀을 깨는 여성들” 중의 한 명이지요! 아직 우리 카톡방에 들어오지 않은 친구, 작년에 동부에서 이사 온 동창이에요. 작년에 이 친구가 어찌어찌해서 68년 만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처음 반갑게 만났는데, 첫눈에 알아봤어요. “전통의 틀을 깨는” 용기있는 친구라는 사실을! 더구나 이 모자, 의상 등 하나하나를 모두 다 자신이 직접 만든 거라니! 솔직히 나는 이런 기발한 의상을 평상시에 입을 용기가 없거든요. 이 친구가 대학에서는 퀴리 부인이 되려고(?) 화학을 전공했다지만 졸업 후에는 화가가 되어 LACMA에 그림이 걸려있고, 패션 책도 (동양 전통 의상, 본인의 창작패션 등) 두 권의 두꺼운 책을 냈고, 미국에서 학부를 나와서 영시집도 냈더라고요! 생활의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한 시도 쉬지않고 두 자녀의 가정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개발을 이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더욱 기절초풍할 뻔 한 사건은 금년 봄에 내가 한국에 한 달 다녀와서 연락해 보니 그 친구가 일생동안 하고 싶었던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나이에?” 라고 반문했더니, “왜?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야!” 라고 여유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 달에는 “애, 판소리 선생님 한 분 좀

구해 줘! 판소리아 말로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고, 한국의 고유한(unique) 음악을 세계에 알려야 해!”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악기도 아니고 판소리는 목소리로 하는 건데… 너, 지금 87세야! 그건 안 되지!!! 그리고 난 판소리의 “판”자도 몰라!!!”

그런데 그저께 그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벌써 한 달 배웠는데, 심청이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부르는 판소리… 너무 좋아. 정말 행복해!” 정말 못 말리는 친구예요! 건강은 요가로 다듬고, 운전은 남편이 하지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진리(?)는 대갓집 마나님처럼 매일 편안하게 소일하는 사람보다 “기쁘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봄에 한국에 가서 만난 동창들: 1개월 반동안 유럽에 배낭 여행 다녀온 친구, 음악회를 연 친구, 구 만리 비행기 타고 고국 방문하여 골프 치고 온 친구, 판소리 소식에 자극 받아 평생 소원인 수채화 배우려 학원에 등록한 친구--- 모두 틀을 깨는 여성들임에 틀림 없지요! 우리 친구 모두들의 베풀며 사는 아름다운 삶, 건강한 정신을 위하여!!

이 거울지가 우리 동기동창들 손에 들어가는 날, 아마 제가 몰매 맞아 기대표 감투를 박탈당할지 몰라요 (하긴 그게 제 소원이기도 하지만!). 왜 특정한 동창 한 명의 소식만 늘어놓았느냐고… 하지만 깨네들도 할 말은 없을 걸요? 자기네 소식 한 줄 안 보냈으니… (총대 잡은 내가 맘대로 하는 거지!) 애들아, 그래도 우리 동기에 이런 기발한 친구가 있어서 다행… 아니, 자랑스럽지 않니? 나, 이 친구 존경(?)하게 되었어.

참, 이제 우리 10명의 귀한 카톡 멤버를 여기 소개 할게요: 구철희, 박영균, 박정자, 유영옥, 윤석순, 이선희, 전영희, 최옥주, 최현숙, 홍연숙, 그리고 따로 연락하는 라완균, 임순희까지 모두 12명이예요.

그리고 작년에 카톡방에서 은밀히 나가버린 사랑하는 임순희 동창… 3일 전에 그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희가 요양병원에 있다가 건강이 좀 좋아져서 집에 와 있다구요. 어찌나 반가운지 울컥했어요. 잠시 통화했는데, 목소리는 좀 약해졌지만, 집 안에서 잘 걸어다니며 생활한대요.



2023. 6. 14 Irvine에서 2달에 한 번씩 만나는 이화동창그룹 (이라회). 이 중에 '55기는 4명: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 박영자 3번째, 유영옥 4번째, 김진 5번째, 그리고 뒷줄에 오른쪽에서 3번째 흰 스웨터 입은 이선희)



2022년 봄 남가주 이화의 모임에서: 가운데 모자 쓴 사람이 라완균, 그리고 그 오른쪽이 홍연숙. 세번째 (까만 dress 착용)는 이화 후배중 한 사람.



전통적 동양 왕족 의상. (모델: 라완균)



56

우리 56 동기모임은 56년도에 졸업 했는데도 아직도 모두 건강해서 두달에 한번씩 모입니다. 더구나 친구들의 반정도는 멀리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만나서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즐겁게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이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57

동창생 케미

코비드 팬데믹으로 온세상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집안에 공공 무여 지내다가 마침내 만남이 허용되어서 모이게 된 '제10 회 북미주 이화 동창회 모임'이어서 우리들 57년 졸업 동창들 10여명은 설렘과 기대로 들떠서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대절 버스에 탑승했다.

한고장에 살면서도 만날 수 없었던 80대 여고 동창생들은 목마르던 만남의 기쁨을 나누느라고 대여섯 시간의 장거리 버스탑승도 지루한 줄 몰랐고, 총동창회가 열리는 장소인 공항근처 힐튼 호텔에 마침내 도착한 우리들을 그곳 현지에서 사는 우리 동기생 4명이 반갑게 환영해 주었다. 우리는 긴 시간의 버스 탑승으로 지쳐있었고 배도 고팠던 터라 샌프란시스코 동기 친구들이 정성껏 초대해준 일식집 베니하나의 데빵야끼 디너는 그야말로 환상 그 자체였다.

서로 만나지 못하던 지난 몇년 사이에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몇몇 우리 동기 친구들의 이름과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니 슬픔과 함께 이 자리가 더욱 애뜻하고 감격스러웠다. 전체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우리끼리 짬짬이 서로 나누는 정겨운 대화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고 서로 바라보는 얼굴에는 기쁜 미소가 빛났다. 이것이 바로 '여고 동창생 케미'가 아닐까.

미전국에서 이화동창들이 모이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듯 멋지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준 샌프란시스코 임원들이 고맙다.

2024년에는 남가주에서 제 11회 총동창 모임이 열린다니 이들의 수고가 눈여겨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행사의 절정은 모든 동창들이 dress up 하고 참석한 총동창회 순서와 만찬,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하는 장기자랑 순서였다. 극성스런 57년도 우리 동기들 14명이 준비한 것은 노래와 춤으로 합창단원 4명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참석한 전원이 백댄서로 춤을 추는 것이었는데 연습이 부족해서 엉성한 공연이었으나 그래도 80대 선배들이 몸을 흔들며 대며 부르는 19금 가사의 Sad Movie 노래에 장내는 박장대소 웃음 바다가 되었고 가장 인기를 끌어서 대망의 대상을 받게 되었다! 노래 가사가 좀 민망한 19금 가사라서 어떨까 싶었는데 모두들 웃음과 재미에 목말라 하던 때 라서 더욱 더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것 같았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작년 크리스마스 동창 파티에서 한번 더 앵콜 공연을 하게 됐으니 그 인기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반가웠다 친구야! 2년 뒤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날 때까지 아무쪼록 건강히 잘 지내자. 그리고 친구야, 우정이란 산길과 같아서 오가는 발길이 끊기면 다시 거친 풀들이 무성해져 그 산길이 사라진다는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여고 동창생들의 만남은 언제나 정겹고 행복하고 순수한 기쁨으로 마음에 날개를 달아준다.



# 60

저희 60기는 매월 3째 토요일에 엘에이에 있는 뉴서울 호텔에서 20여년간 모이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매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이명은, 노경자 두친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슬프고, 섭섭한 이별을 마주하면서 다시한번 친구들과와의 만남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졸업 60주년 행사도 팬데믹으로 참석 못 하게 되어 무척 아쉬웠지요.

지난 4월에는 서울에서 도영자 친구가 미국을 방문했고, 오하이오에서 신규옥 친구가 오게 되어 오렌지카운티 쪽에 모임을 갖고 실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0대에 만났던 우리들이 어느새 80대가 되어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정동 덕수궁 돌담길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2022년 엘에이 모임



2022년 오렌지 카운티 모임



민한기 선생님과 고3 수학여행



졸업 30주년 행사 1990년 뉴욕에서..

## 이화 61기 들의 이야기 - 80의 장벽을 넘기며 -

“80의 장벽”이라는 제목의 책 내용이 You Tube 에 오른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수명 120세 시대라고들 하지만 역시 80의 장벽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장벽을 우리 61기들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현재 8학년 1반이 되었습니다. 그사이 몇몇 친구들을 먼저 하늘로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대다수 동창들이 건강하게 살면서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곤 합니다.

70대에 거의 집 정리를 마치고 오래전에 비어버린 커다란 등지를 미리미리 정리하여 부부가 살기에 알맞은 아담한 주택으로 대부분 옮겨 주거환경을 바꾸어 효과적인 생활공간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충 3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엘에이 지역, 오렌지카운티 북부와, 남쪽 어바인 지역입니다. 모임장소를 정할 때마다 엘에이 지역으로 운전하고 가는 일의 부담 때문에 2개 지역으로 나누어 모이자는 얘기도 간간이 있었지만 진한 우정으로 묶어진 우리 61 동기들은 그럴 때마다 “나누면 안 되지 죽으나 사나 같이 모이자” 하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함께 뭉쳐 다니곤 합니다. 대신 모임장소는 서쪽 남쪽의 중간인 오렌지카운티 Buena Park 지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61기를 대표하여 굵은 일들을 감당하는 회장단은 2명으로 하여 2년 임기로 바꾸어서 감당하는데 한차례씩 거의 돌아가며 모두 다 책임 완수를 했고 현재는 가장 늦게 리타이어 한 죄로 이인선 (본인) 이 우리의 대표로 연락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

도 아닌 것 같은 대표라 하지만 모임을 주선하고 공지 알리고 단톡방 운영하는 일 등 신경 쓸 일은 언제나 있군요.

우리 61기처럼 소위 감투욕(?) 이 없는 동기들도 없을듯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다른 기들 특히 선배들에게 불평 아닌 꾸지람 같은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말없이 협력해 왔네요. 아마도 이화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 일 것입니다. 후배들이 열심히 총 동창회 일을 잘 운영 진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임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고 어느덧 동창 중에도 이젠 시니어 그룹에 들어갔으니 최선을 다해 성원하고 협조하자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단. 특. 방을 통하여 신앙, 시사, 교양, 역사, 음악, 음식, 의학 등 다양한 정보를 나누며 저물 때 더 아름다운 바다 같은 노년의 삶을 살며 곱게 늙어 가자는 무언의 다짐 속에 오늘도 우리 61기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우정으로 이화의 교훈 속에 뭉쳐있습니다.

이화 선 후배 모든 동창님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롱!



# 62

박미자

우리 62기 친구들은 2023년 3월3일 Los Angeles에 위치한 용수산 식당에서 올해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동기들은 나이도 있고하여 요즈음에는 이렇게 전체 모임을 한번내지 두번 갖는데 올해는 특히나 무더운 날씨때문에 3월 이후에는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모두 별 탈없이 올 한해를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63

주춘탁

우리 63기는 매년 홀수달 셋째 금요일에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14 -18 명 정도 모입니다. 멀리 San Diego 에서 사는 친구들도 가끔은 함께 합니다. 올해 5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60주년 재상봉이 있기 전인 3월에 우리들은 만났었고, 5월 모임은 많은 친구들이 서울의 재상봉에 참석하는 관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7월에 서울에서 오신 현 이화여고 교장 김혜정 선생님과 모임 가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만나면 항상 즐겁고 행복해하며 고령의 할머니 들임을 잊고 발랄했고 철 없었던 이화 교정에서의 소녀들로 돌아가 수다의 수다를 이어 가곤 하지요. 그러던 중 지난 5월 늘 남에게 도움을 주기만 했던 너무도 착하고 사랑이 많았던 친구 최경자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 많이 슬퍼했고 다시 한번 친구들과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죠. 유난히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았던 경자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63기 친구 모두들 아프지 말고 건강해서 오래도록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친구들아! 우리 11월에 만나자!

# 64

방인숙

이화여고 64회 동기회(회장 방인숙)는 2023년 1월 28일에 신영숙 전 회장 자택에서 계묘년 새해맞이 첫 모임을 열었다. 올해 신임 임원진은 회장 방인숙, 부회장 김현옥, 총무 이옥경, 회계 홍은식으로 정해졌다. 그날의 우리동기들의 모임은 신영숙 전 회장의 부군이신 연구호 작가의 생일 축하 및 그동안 임원단들의 봉사 활동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방문한 안병림 동기, 최수봉 동기 부부들을 환영하였다.



## 64동기 모임의 8월 일지

분명 9회말은 아닌데 쨍하고 흥분을 맞은 기분입니다. 30여년을 이어온 동기 모임의 꽃은 먹꽃, 수다꽃, 웃음꽃입니다.

그중의 먹꽃은 생각만 해도 침을 꿀꺽하게하는 Dr.연 (신영숙)의 음식솜씨! 오래 전 병원 일을 하던 때도 토요일 진료가 끝나면 서둘러 장을 보아 와서 이쪽에서 쪽...저쪽에서 쪽하면서 떡 벌어지게 푸짐한 상을 차려내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감사하던 친구입니다. 완성하는 속도 만이 놀라운게 아니라, 음—그 맛이 라니!! 여러 친구들의 집으로 찾아 다니던 초창기에는 현직에서 바빠 뛰던 친구들이 그런대로 진수성찬을 차려 냈었죠. 뒤늦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청춘이었습니다. 요즘 몇년간은 Villa Park의 넓고 식탁도 넓게 준비된 곳에서 먹고 대화하는 약식 심포지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8월 첫주말이면 무화과가 주렁주렁 익어서 보따리 보따리 가득 담아주는 연중행사도 있었죠. 올해는 8월 12일에 만나자고 회장단이 발표했는데, 연여사의 달력에는 8월 첫주에 표시되어 있었고... 그 주말에 상차려 놓고 기다려도 안오는 친구들... 무슨일인가 하다가 드디어 한 친구와 전화연락 되어보니, 다음 주라니! 달력에 짝 찬 메모들을 이리저리 짚어 봐도 양로원 방문, 은퇴 의사회 모임등... 너무 짝 차있어서 모두 연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다 이래! 너무 무리하게 한거야! 등등...내 밥을 차려 먹기도 힘든데 세상에 30여명의 음식 대접이라니!!!

그래도 아쉬워하며 8월의 스케줄 따져보다가 29일 화요일이 빈다고, 올수 있는 친구들은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들 바쁘지만(ㅎㅎㅎ이 나이에) 드디어 일곱친구들과 네분의 낭군님들이 모였습니다. 여전히 푸짐한 갈비, 바닷가재 등을 상에 가득차려놓고 저녁 도시락까지 싸주는 주인장의 인심!!!

세상사 이심전심 맞는 말입니다. 식후에 영숙과의 대화중에 \*너무 수고시킨다는 말\* 은 그만 해 달라고, 정 그러면 이젠 식당에서 만나든지, 친구들 집 돌아다니며 하는 것 제의 한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잘 한 결심 임에는 틀림 없는데... 가슴은 텅 빈듯 섭섭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 7: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경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2)



### 우리의 65동기 Walking Club을 소개합니다.

TGIF!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Thank God It's Friday!

네! 우리 대학교 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주 기다리던 금요일, 그 금요일을 지금도 매주 기다리는 할머니 그룹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우리 이화 65 워킹 그룹' 8명이 지금도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손꼽아 기다리는 할머니들이지요.

Fullerton에 있는 Ralph Regional Park 에서 12년째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걷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있는 이 그룹은, 사진에 보이는 동기 동창 친구들인 김재기, 송혜경, 이옥린, 김은주, 장명희, 박영희, 전서경 모두 일곱명 하고, 저 남쪽 한국 사람들이 많지않은 Del Mar에서 이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작년에 동참한 친구 한은지를 더하여 8 명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졸업 후에도각자의 사회 생활과 또는 결혼, 미국으로의 이주, 그리고 은퇴할 때 까지 한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동기 동창들도 있지만, 우리들은 아름다운 이화의 이름 아래서 서로를 반기고 돌보며 자유 평화 사랑을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전후하여 만나보지 못한 우리동기들 모두에게 인사합니다. 많이 보고 싶다고...

또한 열심히 이화 공지사항을 보내주며 수고 하는 서병희에게도 고마운 마음 보냅니다.



66

2023년 <66기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5월 3일 J. Paul Getty Museum 에서 보낸 멋진하루 였다오! 각처에 흩어져 사는 친구들이 카풀해서 오고, 윤근이가(게티 뮤지엄 봉사자 26년차) 노련하게 우리들의 안내를 맡았다. 아래는 뮤지엄 관람후 우리 카톡 단톡방에 오고간 채팅 이야기를 모은것이다.

“Wow! nice! A cool day in L.A.!” (한국에서 혜옥이가)  
 “엘에이 친구들 참 재밌게 지낸다!” (San Francisco 에서 영신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Florida 에서 혜경이가)  
 “오늘 이 아름다운 게티 뮤지엄에서 오월의 한나절을 즐기도록 안내해 준 윤근이와 카풀 운전자로 수고해 준 고마운 친구들.. 나는 윤근이 집에 와서 Tea Time 까지 느긋하게 즐기고 집에 왔는데 멀리 Fullerton 지역에서 온 친구들 집에 잘 들어갔겠지?” (G영희)  
 “서동현이 2시간 넘게 운전하느라 너무 수고했어. 고마워서 죽겠네요! 운전사 동현이가 힘들까하여 옆에서 입담을 풀어준 명숙이 고맙고..윤근이, 반장 영희도.” (안영혜)  
 “집에 오는데 2시간 넘어걸리긴 했지만, 푸른하늘, 뭉게구름에 감탄하며 게티 센터 리처드 마이어 디자인에 다시 감탄하고, 철쭉 메이즈 수상정원, 형형색색의 튜립 또한 눈이 즐거웠지요! 팀 워커 패션과 사진전은 천재의 머릿속, 가슴속으로 들어가서 즐길 수 있어 좋았구.. 엘에이 전경이 펼쳐진 파노라믹 뷰와 멋진 런치도 기억에 남을꺼야!” (서동현)

나의 멋진 친구들! 함께 해줘서 고마워!  
 참석한 친구들: 서동현, 안영혜, 이명숙, 정순희, 안정옥  
 이윤근, 김영희 (L), 김영희 (G)



# 67

우리 67동기들은 오렌지 카운티에 많이 살고 있어서 몇년전 부터는 Fullerton에서 매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도경애가 책임을 맡아주시고 감사지요. 우리 기 단톡방에는 34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있지만 10명 이상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붓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Philadelphia 에서 변희봉이 모임에 함께 참석 했었고 현재는 한국에서 조병은이 방문하고 있다합니다. 박영신은 도예 작가로, Muckenthaler Cultural Center 에서 teaching 과 작품 제작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6월 E.K. Art Gallery 에서의 전시회와 이어서 머켄텔러 문화센터에서는 현재 기념적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영희도 몇년간 건강문제로 고생 하였으나 완전 치유되어 다시 예전처럼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8월 모임에 와서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송혜성

대부분의 친구들이 건강하게 취미활동과 손주돌보는 일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슬프게도 박경렬의 소천소식이 있었습니다. Gardena 에서 악국을 경영하느라 동창회에는 한번도 모습을 안 보이던 친구였는데 아쉽게도 먼저 떠난 것이지요.

믿음이 좋은 몇 친구들은 이화의 딸답게 10년이상 기도모임을 매달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4명의 친구가 합참에 조인하게 되어 든든한 67기로 뭉쳐서 함께 노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 점점 운전도 힘들어 질 터이니 기회될때 동기 모임에 열심히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





# 68

저희 68 동기 모임은 한달에 한번 첫째 목요일에 만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는 LA 에서 한번, OC 에서 한번, 번갈아 모입니다. 운전이 점점 자신감을 잃다 보니 우리 68기는 자연히 두 팀으로 나뉘게 되고 있지요.

우리 동기 친구들 중에 전옥희를 소개합니다. 그 친구는 슬하에 딸이 두명있는데 둘째 딸이 대학 2년 차에 결혼하더니 손주 세명을 안기고, 거기서 더 나아가 증손주 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큰 딸은 손자 하나를 선사했습니다. 그 중에 작은 딸에서 얻은 손

이문희

녀 딸이 이번에 Seattle 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Friday Harbor 라는 작은 섬에서 증손녀 돌잔치를 한다고 하여 초대받아서 아주 재미있고 기쁘게 지내고 왔어요. 세상에서 제일로 치는 싱싱한 굴도 먹고 왔답니다. Friday Harbor 는 Washington 주에 있는 San Juan Island 로 아주 아름다운 조그만 섬이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동기들 모두 초대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온 축복받은 인생이지요.



# 69

심현주

우리 69기 모임은 격월제 모임으로 화기애애한 동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들 중에는 리타이어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건강관리에 열중하고, 또한 여행중인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우리 동기의 전원 모임은 연말에 하는 이화 남가주 동창회 송년 파티

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당연히 모임을 꾸준히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70

송묘령

저희 70동기 모임은 언제나처럼 홀수달 세번째 금요일에 소중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 모임은 서울로 이사 간 김용복과 Jordan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조복순이 방문하여 Orange County에 위치한 일식집에서 너무도 오랜만에 그리운 서울 친구들과 소식도 많이 들으며 70대 여인들의 화려한 외출을 즐겼습니다. 작년에는 유난히 아팠던 친구들도 많았고,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친구들도 있어 이제부터는 더더욱 기회 있을때마다 만나 우리들의 삶을 재충전하는 행복한 여인들이 되자고 다짐하곤 합니다.

작년 San Francisco 북미주 동창회 총회에도 우리 70동기들은 Seattle(김경주,이혜현), Chicago(이의숙,김연숙), Minnesota(한진혜), San Francisco(이인희,홍혜련,김경숙), 그리고 LA 친구들이 참석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50여년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지만 일초만에 어릴적 그 시절로 되돌아가 너무도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들을 맛 보았고, 밀린 숙제 하듯이 그동안의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소중한 추억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70기 친구들이 17명이나 참석 하였으니 북미주 동창회 총회 만찬 장기자랑에 나가자고 하여 각자 빨간 shirts, 까만 바지를 준비해 가서 우리의 영원한 만능 재주꾼 제영혜로부터 30분 레슨 받고 용감하게 무대에 올라가 나미의 "영원한 친구"에 맞춰 멋진(?) 라인댄스를 하고 열렬한 박수를 받았답니다. 몇명 안되는 SF 친구들이 남편들까지 동원하여 웅숭한 대접을 해 주어 너무도 황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예~~

정기모임때마다 맛난 점심식사후 뒷풀이로 인생토론, 건강토론, 그리고 잘 이루지도 못하는 야무진 여행토론을 하며 우리 70 친구들의 우정을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위하여 항상 장소제공을 기쁜 마음으로 해 주는 우리의 입담군 백혜란과 미모담당 김은희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2023년 토끼해를 맞이한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8월이 되었네요. 우리 72 동기는 매달 세번째 토요일에 동기 모임을 몇십 년째 지속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올해에 칠순이 되니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제일 중요함을 한층 더 느끼게 되어요.

지난 1월에는 박영신의 남편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고, 2월에는 백경희 남편께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아직 회복 중에 계셔요. 3월에는 권영화의 어머니님, 6월에는 방창범의 어머니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밴쿠버에서 곳곳이 암과 잘 싸우고 있는 이영숙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 늘 기도 하고 있어요. 김동숙, 김인경, 최동은과 최순화(72기 Golf Dream Team)는 매년 두번씩 개최하는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회 골프 대회에 참석하며, 우리 동기 대표로 모교 사랑을 보여 줍니다.

올해 칠순이 된 우리동기들은 칠순 기념으로 여러 이벤트를 진행 했습니다.

첫째 행사: 2월 18일에 강은주 초청으로 칠순잔치를 했어요. "Go Young 70!" theme에 맞게 모두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

고 만나서 젊음을 과시했습니다.

둘째 행사: 다리가 움직일 때 여행가자는 의견이 나와서 최동은이 주관하여 12명의 친구들이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캐나다 록키산맥 여행을 다녀왔어요. 상호 관광의 유명한 가이드인 김 반장의 유머와 재치에 반해서 모두들 유쾌한 여행을 하고 왔어요.

셋째 행사: 8월 12일에 Laguna Beach에 있는 음식점 Las Brisas에서 "Happy 70th Birthday!" luncheon을 했어요. 제일 좋은 Ocean View table 을 예약하느라 Irvine 에 사는 이영숙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20명의 친구들이 맛있는 곳에서 맛있는 3 course meal 을 즐겼습니다. 비싼 점심 (1인당 \$100) 을 동기 회비로 사 주신 김은미 회장님께 감사드려요. 점심 식사 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멋있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넷째 행사: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2박 3일동안 Palm Springs의 한 리조트에서 우리의 청춘을 불태울 예정입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우리 동기들,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김해숙

# 73

세월이 유수같다? 세월이 쏜 화살같다? 어느 쪽이 더 빠른지?? 생각해야 할 정도로 올해는 세월의 빠름을 절실하게 느낀 한해였다.

1973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니 2023년인 올해가 50주년되는 해여서 재상봉 모임을 위한 오찬과 여행이 지난 5월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도 여러 친구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해후를 만끽하였다. "어쩔, 넌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야?"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였던 건지, 아니면 하강한(?) 천사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였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화기애애 하였을 분위기가 상상이 간다.

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기 임종화가 이화를 빛낸 상의 수상자중 한명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또한 비록 상은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서, 아내로, 엄마로, 할머니로, 각기 속한 community의 소중한 일원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열심을 다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7월 모임엔 한국에서 방문한 애림, 봉숙과 혜화, Las Vegas 에서 온 진주, 그리고 우리 동기 동창모임에 처음 참석한 정미, 정말 너무 반가웠고 참석해줘서 고마웠어.

73 동기 너희들 모두 짱이야!!!

특히 Houston에서 Southwestern National Bank의 은행장



우리 74동기들은 “올해에는 되도록 한달에 한번씩은 만나도록 하자” 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두해는 회장단을 맡아 바빴지만 올해부터 우리 동기들 만남에 충실 하려고 했지요.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activity 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여서 반가운 얼굴보고, 먹고 웃고 이야기거리 떨어지는 줄 모르고 이어지는 수다 activity 가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내년에 있을 50주년 Homecoming 본교 방문 계획과 준비에 기대와 흥분으로 들떠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이화 Campus 는 어떻게 변해있을까? 친구랑 매일 그 그늘에 앉아놀던 은행나무는 여전히 여전한지, 등나무길 등나무들도 많이 늙었겠지? 잔디밭 주변에 심어진 함박꽃들도 여전한지, 내동기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날 알아보거나 할까? 기대 반, 설렘 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입니다.

올해엔 경사가 많았어요. 우선 1월에 혜진이의 딸 Diana 가 결혼을 했답니다. 엄마의 최고의 절친이자 효녀, 재능도 많은 딸이 어느새 커서...그리고 3월에 제가 첫손주를 보는 기쁨이 있었고, 5월에는 은경이의 예쁘고 똑똑하고 재능많은 딸 산드라가 그

녀의 첫사랑과 결혼을 한 아름답고 가슴 축축해지는 경사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몇년 암으로 고생하시던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우리 친구 재경이의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고, 지난 6월엔 우리 동기 이신숙이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건강 체크와 건강상담을 도맡아 조곤조곤 약사답게 설명 잘해주던 친구, 항상 차분하고 양전한 모범생에 온화한 미소와 진주 목걸이가 그리도 잘 어울리던 친구...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기를...

지난 8월초 Cerritos에 있는 중현이 집에서 모이던 날엔 마침 한국서 San Diego 에 방문중인 우리 동기 서경원이 가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경원이가 직접 동양화 그리고 성경구절 쓰고 우리 이름 하나하나 써넣어 만든 부채를 선물해줘서 모두 하나씩 부채 펼쳐들고 기념사진 찰칵 찰칵... 이런 특별한 선물 마련해 와준 친구의 정성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고마워 친구야~

우리를 이화로 인도해 친구의 인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와 힘이되는 만남을 오래오래 지속해낼수 있는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뜻깊은 한해

이번 2023년은 저희 75기 동기들에게는 참으로 뜻깊은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 75기가 이화여자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를 맡아서 이끌어 가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장단이 2년씩 동창회 일을 섬기는데 그 중에 가장 떨리고 중요한 첫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 75기 동기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기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 75 동기는 매해 짝수달 첫번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친구, 손주들을 뒷바라지하는 친구 등 각기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모임에는 꼭 참석하여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추억에 잠기며, 담소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행복해 합니다. 특히 얼마전에는 한국에서 여기 남가

주로 잠시 이주한 친구들 (권정현, 김정희, 이해주) 과 봉사하던 선교지에서 잠시 들어온 친구 (전덕희) 를 만날수 있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일은 우리 동기인 친구 문애리가 올해 한국에서 열린 총 동창회에서 학술부문에 이화를 빛낸 상 (이빛상) 을 받게 되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서 우리 동기 모임에 참석 하지는 못하지만 평생을 공립학교 한국어반 개설에 앞장서고 한국어를 보급하는데 헌신한 노고를 인정받게 되어 너무 가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동기모임이 있고 또 이화 동창회가 이곳 남가주에 있어서 비록 오래전에 우리들의 몸은 학교를 떠났지만 이화에 대한 사랑이 나날이 더해감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친구들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 UC Berkeley 경제학 & 사회복지학 학사, 사회복지학 석.박사
- 전 UCLA 사회복지학 부교수
- 경력:
  - 1988-1997 미네소타주립대학, UCLA 사회복지학 조교수
  - 1994-2001 한국어진흥재단 이사
  - 2001-2018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1회)
  - 1998-2019 UCLA 사회복지학 조교수
- 주요활동:
  - 2008 미국 중고등학교 한국어반
  - 2001 미국 대학교 한국어반
  - 2010 미국 대학교 한국어반

이화여고 졸업 77기, 올해 저희 메디케어 받아요. 야호! 기뻐해야 되나? 아니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묘한 감정이 드네요.

모두 바쁘게 살다 보니 같은 동네 친구들은 삼삼오오 자주 만나기도 하는데 전체가 모이기는 일년에 한 번도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Fullerton에 위치한 Muckenthaler Cultural Center에서 열린 한국의 세창 김세용 도자기 명장의 '청자 전시회'를 핑계로 4 명이 만나 새삼 청자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고 오랫동안 이야기 꽃을 피었습니다.

소영이는 팬데믹 기간에 시작한 나비 키우는 취미를 계속하며 생태계 환경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고 영주는 늦게 만난 신랑과 알콩 달콩? 사는 소식. 형주는 친구들 중 제일 먼저 손주를 보고,

또 제일 많은 손주(5명)를 본, 그래서 제일 먼저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미혜와 현옥이는 어머니 저세상으로 보내드리고 자식 출가 시키고, 혜영이는 큰 수술 잘 극복하고 남편과 같이 밴드에 재미붙여 베이스 기타 배우며 노후대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멀리 코로나에 사는 심 영이는 언제나 교회 일에 열심이고 늘 예쁜 실로 수세미 만들고, 열바인으로 이사가간 영숙이는 산행에 열심입니다. 승화와 찬주는 카톡방에도 잘 안들어 오고 소식이 가물 가물합니다. 혹시 자신의 소식이 빠진경우 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실수려니하고 이번 거울지 받으면 내 소식없다고 섭섭해 하지 말기를...

올해 가기전에 꼭 모여서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고 내년에는 77기 소식에 쓸 얘기거리를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 반갑다 친구야

내 나이 환갑인데 ... 우리는 아직 가람머리 고등학교 시절이다. 작년이었나 보다. 우리 동기 보미가 시애틀로 집을 옮기는 바람에 어느날 갑자기 원선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유경아! 우리 보미한테 가자! 시애틀로 놀러가자!” 난 일초의 망설임 없이 “가자!”

우린 이렇게 여고동기 해후를 하러 보미가 있는 시애틀로 여행을 떠났다. 3박4일로 정하고 떠나서, 우리는 보미한테 민폐를 끼치며 즐거운 여고시절로 돌아갔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곳을 몇번 가보았기에 초보자인 원선의의 안내를 하면서 ...

우리 셋은 깔깔 거리며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집에 와서는 우리의 지난 세월도 돌아보고 논하면서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린 영원히 여고시절이기를 바라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할수도 있네! 라고 되묻게 되었다.

이민 세월이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특별한 친구도 하나없이 앞만 바라보고 직장생활에, 아이들 양육에, 내가 어떻게 나이 먹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가버렸다. 어영부영 이 나이가 되어보니 사람이 그리워졌다. 노래라고는 고등학교때 음악시간외에는 모르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며 이화코랄에 함께 와서 노래하자고 제안한것도 감사할 따름인데, 게다가 동기동창인 우리들은 참 소중한 인연이다.

나의 소중한 인연인 친구들아! 건강하고 즐겁게, 더도덜도 말고 이처럼 가끔이라도 해후하면서 지내자.

반갑다 친구야!!!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23 제 22호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한영숙 (56)

이혜리 (56)

최화자 (56)

이용복 (63)

김영자 (57)

이혜경 (69)

김태신 (57)

장현주 (75)

유연순 (57)

서성민 (75, 오레곤주)

강재경 (63)

안원숙 (75)



웨스턴  
3가

# 라이프 의료기구용품

Since  
1989

김정자(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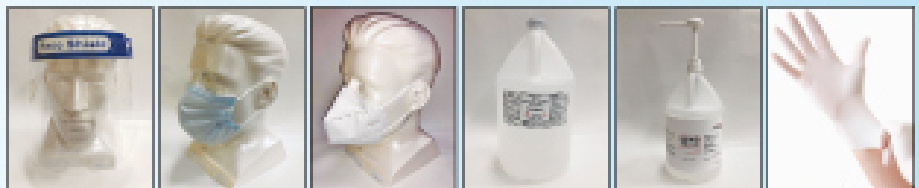
※개업 35주년 기념 세일



## 라이프 의료기구 지점 (그랜드 메디칼 센터)

Tel. (213) 386-1707 / Fax (213) 480-3247

500 S Virgil Ave., #106, Los Angeles, CA 90020 (6가 + Virgil)



### 의료기구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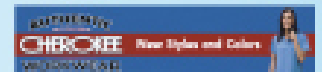
환자용전기침대/휠체어/워커/산소호흡기/이동식변기/목욕실보조기구/노인용기저귀,  
혈압기/혈당검사기/3M 청진기/진단기셋/인공유방 및 브라(Lingerie), 스타킹,  
간호원 유니폼, Table Paper, Inversion Unit, Tens, 마사지기구, 온열기,  
손세정제, 알콜 70%, 99%, 덴탈 마스크, Kn95, Face Shield, Glove



Accredited by the Joint Commission

※가능성 특수 신발,  
당노인을 위한 특수 신발 ※

간호원 유니폼 세일



- ▶대표: 김정자
- 이화여중, 고졸업
-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양학과 졸업
- 영양사(한국)

## LIFE MED

※ 영업시간 ※ • 월~금요일: 9시 30분~5시 30분  
• 토요일: 10시~3시 • 주일: 휴무

3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5-9133 / Fax. (213) 385-3121  
lifemed333@gmail.com



## 2023 남가주 이화 거울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



연 습: 매주 토요일 9:30 am- 12:00 pm

장 소: 미주 평안 교회

170 BIMINI PLACE

LOS ANGELES, CA 90004

지휘자: 석재희 (79) (714)452-7600

단 장: 이윤경 (69) (213)675-0725

부단장: 백혜란 (70) (213) 247-4524



## 2023 남가주 이화 거울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강재경(63)

I am a retired California CPA. Having Ewha education, I graduated with a 4.0 GPA in accounting and lived a good life with success (for over 56 years in the US).

At our 60th Ewha reunion trip to Seoul, I realized how grateful I am for my Ewha education.

Thanks for allowing me to express my gratitude.

It's more authentic in English than translating in Korean.



## 2023 제 22호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LICENSE NUMBER OH00486



무엇이든  
함께 하면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구



권선희(75)



### 유니 굿프렌드 보험

HEAD OFFICE (LA)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988-7979 Fax. 213-674-4383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7 Buena Park, CA 90621  
Tel. 714-276-1133



## 유관순 기념관 건축 안내

유관순 기념관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준 기념관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 유관순 기념관이 완공 되었고 첫 행사를 그곳에서 가지며 예고 학생들의 오케스트라에 맞추어 불렀던 헨델의 메시아곡중 할렐루야 합창은 어린 소녀가 경험했던 평생 잊을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40여년을 미국에 살면서 모교를 등한히 한 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명문고 뒤에는 그 학교를 받쳐주는 훌륭한 동문들이 계신다는 말을 한번 더 상기했습니다.

그동안 유관순 기념관을 개축하고자 많은 기금 모금이 있었지만 한국의 여러 사회적인 제반 여건의 변화로 인해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더 힘을 합하여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유관순 기념관 건축 기금은 2020년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2020년에는 4억여만 원, 2021년에는 20억 6000여만 원, 22년에는 6억 8000여만 원, 23년에는 12억 5000여만 원이 각각 모금되었다합니다. 그중 1억 이상 기부자는 16명이며 총 1,863 명이 기부하여 총 동창의 2.87% 가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남가주에서는 2020년에 10만불을 전달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동창님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식을 듣지못해 미처 동참 하지 못하신 동창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이번기회에 더 기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 필요한곳에 아낌없이 쓸때 그 기쁨 또한 크리라 생각합니다.

모금은 완공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 하니 동창님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하며 늘 부어주시는 이화사랑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참고로 백만원을 기부하시는 동창께서는 유관순 기념관 의자에 기부자 이름을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체크는 Payable to: Ewha A.A. 라고 쓰시고 메모란에는 반드시 학생때의 이름과 학번, 유관순 건축기금 이라고 써주시고 회계 최원경(Ellen Lee)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llen Lee  
16 Del Italia, Irvine, CA 92614 로 보내주세요.

이화여중고 남가주 동창회장 장현주(75)





### 제 22호 거울지 후원금 내역 (\$13,500)

**기별후원금: \$4,200**

56, 57, 58, 60, 61, 62, 63, 64,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0

**Business 광고 후원금: \$4,500**

- Life Med/ 김정자 (64): \$1,000
- Diamond Global Escrow, Inc./ 홍훈정 (70): \$500
- California Mortuary Group, Inc./ 강은주 (72): \$500
- Good Friend Insurance Services, LLC/ 권선희 (75): \$1,000
- Cinema Dental Care/ 손장숙 (75): \$500
- 남가주 이화여중고 동창 합창단: \$500
- Ewha Chorale: \$500



**개인 후원금: \$4,800**

한영숙(56): \$500, 이혜리(56): \$500, 최화자(56): \$200, 김태신(57): \$300, 김영자(57): \$500, 윤연순(57): \$500  
강재경(63): \$1,000, 이용복(63): \$200, 이해경(69): \$200, 장현주 (75): \$500, 서성민(75):\$200, 안원숙(75): \$200



###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본국/미주 장학금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에서는 여러 동창님들의 정성어린 기부금으로 매년 본국과 미주에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업이 우수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는 이메일로 받아서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년에도 4명의 학생들을 선정하여 \$1,000씩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Hanna Sung, Marilyn Benavides, Sarah Kim, Elizabeth You)  
내년에는 신청 마감을 6월 30일로 하며 7월에 장학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광숙(68) 장학위원장 909-762-8027, 이수인 (68) 장학위원 909-762-8027, 서숙영(75) 장학위원 213-703-201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선교비 후원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에서는 매년 해외에서 선교 사업에 수고 하시는 동창 몇 분께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네분의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후원 했습니다. (홍연숙(55), 김윤자(63), 최영희(67), 윤현주(81))  
선교비 후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장현주(75) 동창 회장 sunnydow@gmail.com (818-632-4587)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ission

2023년 동창회비 (356명)

\$10,730

졸업년도	재학시 성명
52	최영해
53	석윤희, 윤옥자, 임성은, 임인자, 주영자, 한명순
54	김숙정, 박정옥
55	구철희, 박영균, 박정자, 유영옥, 윤석순 전영희, 최옥주, 최현숙, 홍연숙
56	김순성, 김영순, 김정은, 맹혜숙, 박희경, 송영자 원순주, 유경선, 이성숙, 이숙자, 이정희 이혜리, 최화자, 한영숙, 허명숙, 홍정임
57	김윤자, 김혜련, 반옥림, 윤 훈, 윤연순, 이안나, 이정자 이양훈, 이영심, 임영실, 장대옥, 장명숙, 정수혜 주영희, 진영주, 차명숙
58	김연, 김영혜, 방부혜, 박안자, 신현자, 이영희, 이장란, 최운봉
59	박승자, 연혜경, 원호경, 장선용, 홍영옥
60	김영인, 민경문, 박자경, 신호국
61	권영혜, 금동심, 김성자, 김옥지, 김인숙, 백부자, 심민자 양혜명, 오순자, 윤수경, 이미자, 이민자, 이인선 이인자, 정수영, 조규선, 최규병, 최신자, 홍유현
62	강미자, 김덕희, 김대훈, 김명자, 김윤자, 김차남 김홍숙, 김희성, 박미자, 박화영, 변양자, 송영자 안수영, 유혜란, 이선화, 이희경, 장영자, 전민옥 조경옥, 조양자, 조호경, 최영하, 최숙자, 한옥주 홍선애, 황현숙, 김정자
63	강승자, 강재경, 고혜원, 김명자(cer), 김명자(encs) 김보연, 김송자, 김여옥, 김윤자, 김인자, 김혜자(OC) 김혜중, 나춘실, 박철주, 윤혜자, 이경옥, 이명자 이상옥, 이수미, 이영애, 이용복, 이인화, 이정숙 이정자, 이혜련, 이혜숙, 임주자, 임철자, 장현자 경건희, 주춘탁, 최경자, 최수자, 최애자
64	고광애, 김명옥, 김문자, 김소연, 김정선, 김정자 김진순, 김현옥, 김태옥, 박순옥, 박영신, 방인숙 배경순, 백현자, 서원희, 신영숙, 안순희, 오현숙 이복희, 이봉숙, 이숙일, 이옥경, 이정희, 이주희 이현숙, 전명원, 조규령, 조길자, 최금화, 최한희 최희경, 호진희, 홍순조, 홍은식

졸업년도	재학시 성명
65	김대봉, 김영주, 김재기, 김은주, 서병희, 송혜경, 오영옥 유향전, 이정혜, 전애린, 조영애, 허순희, 장명희
66	길희경, 김영희(gi), 김영희(oc), 안정옥, 이명숙 이정숙, 이해옥(미), 이해옥(예), 정덕주, 정순희 정은자, 한종주
67	김동순, 김명숙, 김숙, 김정희, 도경애, 박경옥 박영신, 박영애, 송현숙, 송혜성, 원승교, 이미경 이상민, 이영주, 전신영, 전용선, 조민선, 최영희
68	금봉숙, 길정선, 김광숙, 김애권, 김인수 김정신, 김태숙, 김혜경, 김혜숙, 김효숙 박성녀, 박영순, 박혜선, 박혜정, 백영희, 이문희 이수인, 정현진, 조희서, 최영희, 한금숙
69	강영옥, 권민희, 김내한, 문정인, 박혜옥, 성애경 심현주, 이해경, 이경희, 이화숙, 서옥경, 한정혜 홍훈정 외 10명, 한혜순
70	김경진, 문순옥, 안영숙, 조미영
71	김동숙, 김은미, 배경희, 이대경, 이춘희, 이희목
72	이혜란, 정경실, 최동은, 최재정, 황진숙, 권영화
73	강정임, 김해숙, 문지현, 박연옥, 신연옥, 윤갑모 윤은옥, 이복순, 이선옥, 임종화, 정애수, 정은복 정유진, 홍미향, 이경화
74	권기숙, 김은경, 김정미, 김충현, 김지인 박정우, 신은화, 유선이, 이경선, 이선희, 이신숙 이영희, 이현경, 이혜진, 장난희, 전귀민, 전안복 조유환, 지희자, 최선영, 최정희, 황미양
75	권선희, 권정현, 김미래, 서숙영, 손장숙, 안정림 원철경, 이주혜, 장현주, 최원경, 한영덕
76	김혜주, 박명숙, 박유리, 이성자, 윤원선, 한애나 김한영, 문명화, 박은란, 이영심, 정영옥, 조희옥
77	심영, 정은경
78	박혜경
79	석재희
80	장보미, 박원선
2009	정지연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성명, 졸업년도, 금액) 필요하시면 기대표나 동창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2023-9/19/2023

2023년 이사회비 (160명)

\$22,640

졸업년도	재학시 성명		
46	신호순	68	김광숙, 김애권, 문정옥, 박성녀(200), 박혜선 이문희, 이수인
52	김희경 (200)	69	강영옥, 문정인, 박혜옥, 이혜경, 이화숙, 한정해 심현주, 이경희
53	임인자	70	김성숙, 김은희, 김춘영, 백혜란, 송묘령, 제영혜 홍순애, 홍훈정(2,000)
54	김숙정	71	구자란, 권윤자, 김경진, 문순옥, 심미경, 안영숙
55	윤석순, 전영희, 홍연숙	72	권영화, 김은미, 백경희, 이대경, 이춘희, 이혜란 최동은, 최재정 (200)
56	맹해숙, 박희경, 송영자, 이혜리(200) 최화자, 한영숙(500)	73	강정임, 김해숙, 박연옥, 신연옥, 윤갑모, 이복순 이선옥, 임종화(470), 정애수, 정유진, 정은복 홍미향
57	윤연순, 이안나, 이양훈, 진영주, 차명숙	74	김은경, 김중현, 이선희, 이영희(300), 장난희 전안복(300), 지희자, 최정희
58	김연, 김영혜, 방부혜, 박안자, 이영희, 이장란, 최운봉	75	권선희(300), 김미래, 손장숙 (170), 원철경, 이주혜 장현주(500), 최원경, 한영덕
59	연혜정(200), 장선용(300)	76	김혜경, 박은경, 박은란, 이성자, 이영심
60	김영인, 민경문, 신호국	77	정은경
61	윤수경, 이인선	78	박혜경
62	김정자, 김차남(200), 김희성, 박미자, 조호경, 최숙자	80	박원선(200)
63	강재경 (1,000), 김명자(encs), 김보연, 김윤자, 이경옥 이용복(200), 이혜숙, 주춘탁	82	김희선
64	김명옥, 김문자, 김정자(300), 방인숙, 박영신 신영숙, 이숙일, 이주희 (200), 최한희, 호진희		
65	김대봉, 김영주 (200), 김재기, 노현숙, 송혜경 서병희, 유소열(200), 이옥린, 이정란, 전애린, 허순희		
66	김영희(gl), 이혜옥(예), 장영희, 정덕주, 정순희		
67	김동순, 김숙, 도경애, 박영애, 송현숙, 송혜성 이미경, 이상민, 이영주, 이영윤(500), 전용선, 최영희		

미주 장학 후원금 (TOTAL: \$300)

김숙정 (54) - \$100, 이용복 (63) - \$200

모교 장학 후원금 (TOTAL: \$16,000)

강재경 (63) - \$10,000, 박영신 (64) - \$5,000  
Illinois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 \$1,000

유관순 기념관 후원금 (TOTAL: \$280,600)

김문자 (64) - \$1,000, 방인숙 (64) - \$200, 신영숙 (64) - \$2,000  
배경순 (64) - \$1,000, 유진순 (64) - \$300, 이옥경 (64) - \$100  
최희경 (64) - \$100, 최한희 (64) - \$1,000, 홍은식 (64) - \$500  
안유현(64, 일리노이주) - \$180,000, 64 동기 - \$2,000,  
오영옥 (65) - \$100, 안정옥 (66) - \$1,000, 박경렬 (67) - \$1,000  
이문희 (68) - \$500, 강정임 (73) - \$500  
임종화(73, 텍사스주) - \$10,000, 이영희 (74) - \$76,500  
문애리 (75) - \$2,000, 장현주 (75) - \$800

환경 후원금 (TOTAL: \$500)

72동기 - \$500 (Tree People)

선교 후원금 (TOTAL: \$200)

이용복 (63) - \$200



제 22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한영숙(56)



제 22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이혜리(56)

작년 2022년에 발행한 남가주 거울지 제21호를 받아보았을 때를 생생히 기억한다. 얼마나 선배님들이 거울지를 잘 만들었는지 순식간에 그 많은 사진들을 주욱 훑어 보았다. 그 중에서도 21호 특집 기획인 ‘우리들의 추억여행 사진모듬’이 제일 먼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다음해인 2023년도가 우리 75기 동기들이 합심하여 다음 22호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잊은채 나는 거울지의 매력에 푹 빠졌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임무가 내게 떨어졌다. 워낙 나의 성격 자체가 무얼 주저주저 하는 성격이 아니고 한번 마음먹으면 그대로 돌진하는 스타일이라 YES를 너무 쉽게 해버렸다.

나는 42년전에 미국에 와서 학습장애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중학교 교사 (Resource Specialist Teacher) 로 30년을 근무한 후에 은퇴를 하였다. 팬데믹이라 LA 교육구의 학교전체가 휴교를 시작한 해인 2020년 6월에 마지막 수업을 하였다. 내 학생들과도 줌 (zoom) 으로 마지막 수업을했고, 8학년 졸업도 그렇게 줌(zoom)으로 졸업식이 치러졌다. 나의 은퇴식도 줌 (zoom) 으로 faculty meeting 하면서 모든 선생님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했다. 교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한장이 없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중 Carol D. Dweck의 ‘Growth Mindset’ 이라는 책을 다시 정독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지능이나 재능이 노력이나 학습에 의해 개선되고 발전할수 있다는 주장을 더욱 믿게되었다. 그래서 도전한것이 윤승준 선교사님이 쓰신 여러 IT (Information Technology) 책도 읽어보고,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강의도 줌(zoom) 으로 듣게 되었다. YouTube를 통해서도 IT에 관한 비디오를 열심히 찾아서 보곤 하였다. 특히 한글 타입이 서툴러서 늘 독수리 타법으로 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Google Document 의 “Tools” 를 이용하여 한국어로 “voice typing” 하는것을 배웠다.

드디어 이 지식을 써먹을 기회가 왔다. 거울지 원고를 모집할 때 typing 하실수 없는 분들은 handwriting으로 쓴글을 그냥 보내셔도 된다고 공지하였고 7-8개의 원고가 이메일 혹은 카톡으로 내게 전송되었다. 보내주신 글들을 배운대로 소리내어 읽으니 컴퓨터가 알아서 척척 한글로 타입을 쳐주는게 아닌가? 단숨에 읽으니 시간도 얼마 안걸려서 너무나 효율적인 것에 감동 먹었다. 역시 ‘아는것이 힘이다!’ 를 외치며...

또한 Writing 교정볼때에 주로 많이 사용했던 Pair Share 방법을 이번 거울지 원고 교정하는 데에도 적용해 보았다. 원고가 들어올 때마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후 Google Document의 Share를 이용하여 모든 편집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각 편집위원들은 각자 할당된 원고들을 Editing 하고, 교정을 마치면 그 다음 사람이 이미 교정 보았던 원고를 다시 교정하면서 편집하기를 서너번 거듭하였다. 이런걸 재택근무(?)의 모미라고 하나? 게다가 인쇄소에서 나온 원고들을 편집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재확인을 하는 편집 과정도 거쳤다.

이번 2023년 제22호 거울지가 나오기까지 사랑으로 원고와 사진을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나의 75기 동기들, 선배님과 후배님들, 기 대표님들, 동아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우리 7인의 편집위원들의 땀과 수고가 없으면 탄생하지 못했을 우리의 제22호 거울지!!! 날씨도 더운데 너무 애썼고, 고맙고, 자랑스럽고...크고도 힘찬 박수를 보낸다. 이화인의 모두가 사랑으로 뭉쳐있어서 우리의 거울지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P.S. 유난히 부드러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울지 편집을 은근히 즐기는것 같은데 일을 다시 시작할래?” 난 일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NO, Thank you!”*

이주혜 (75)





梨花

## 2023년 이화 송년모임

- 일시 : 12월 2일(토) 오전 11시
- 장소 : Oxford Palace Hotel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 회비 : 1인 \$80 / 부부동반 : \$160
- 연락처 : 장현주 (818) 632-4587  
sunnydow@gmail.com  
권선희 (213) 445-0631  
sunnykwon7@gmail.com

이번 송년 모임에는 각 기 대항 Dance Battle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화여자중 · 고등학교남가주동창회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